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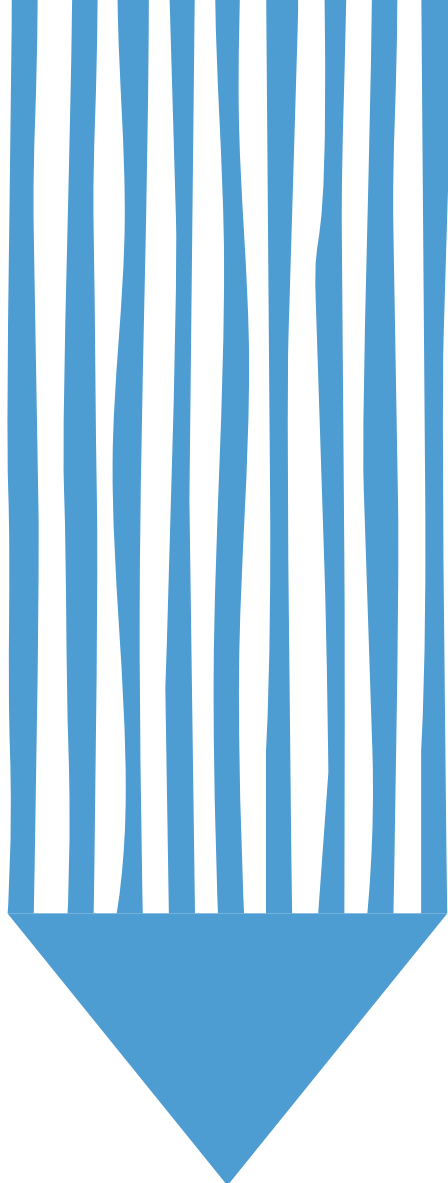


## 에듀원 콘텐츠 저작권 안내

(주)에듀원에서 제공하는 보충자료입니다. 아래의 콘텐츠 저작권 고지를 반드시 인지하시어 사용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저작권법 위반으로 인해 피해를 받으시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본 콘텐츠에 실린 모든 편집 구성 및 형태에 대한 지적 재산권은 (주)에듀원에 있으며, 전부 또는 일부를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전재, 전송, 배포, 2차 저작물 작성 등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콘텐츠 산업 진흥법>, <저작권법>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습니다. 타 사이트나 카페, 블로그, 웹하드, P2P 등 (주)에듀원으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온·오프라인에서의 공유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저작권에 대해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홈페이지에서 '고객센터' → '1:1문의'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답 및 해설

100발  
100중

고등 내신 1등급을 위한 기출문제집

고등영어

C

# 05 How to Win Over Someone's Mind

## W 교과서 핵심 어휘 확인 문제

p.008

- 01 ③  
 02 (1) resolve (2) neutral (3) politician (4) budget  
 03 ① 04 ③

- 01 ①②④⑤는 '형용사 : 명사'의 관계이고, ③은 '동사 : 명사'의 관계이다.  
 ① 효과적인 : 효과                      ② 가치 있는 : 귀중품  
 ③ 무시하다 : 무지                          ④ 인지의 : 인지  
 ⑤ 실험적인 : 실험
- 02 (1) resolve(해결하다): 문제나 어려움에 대처하는 만족스러운 방법을 찾아내다  
 (2) neutral(중립적인): 논쟁이나 의견 충돌에 관련된 어떤 사람들이나 단체도 지지하지 않는  
 (3) politician(정치인): 정치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 특히 정부의 선출된 구성원  
 (4) budget(예산): 조직이나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돈 또는 그것이 어떻게 쓰일 것인지에 관한 계획
- 03 '평가하다; 속도'라는 의미는 rate로 표현한다.  
 • 회사는 그녀를 매우 높이 평가하는 것처럼 보인다.  
 • 내 돈은 급속도로 바닥나고 있었다.
- ② 진행자; 주최하다                      ③ 자금, 기금; 투자하다  
 ④ 지급하다, 주다; 상                      ⑤ 칭찬하다; 칭찬
- 04 ③ '학생들은 그 그림의 효과적이지 않은 색채 사용에 감탄했다'는 문맥상 어색하므로 ineffective(효과적이지 않은, 비효율적인)를 effective(효과적인)로 바꿔 쓰는 것이 적절하다.  
 ① 저는 열심히 일하니까 돈을 많이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② 고객들은 제공된 사물함에 귀중품을 넣고 잠가 두었다.  
 ④ 열대 우림의 넓은 지역은 지금 파괴로 위협받고 있다.  
 ⑤ 귀사의 직원들이 제공한 도움에 매우 감사합니다.

## C 교과서 핵심 대화

p.009-010

- 01 ③ 02 I think you will get through it.

- 01 ①②④⑤는 그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설명서를 자세히 읽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내용이고, ③은 설명서를 읽는 것이 소용없다는 내용이다.  
 02 '나는 ~라고 생각해'는 'I think (that) + 주어 + 동사'로 표현하고, '~을 해내다'는 get through로 표현한다.  
 A: 나는 내 취업 면접이 너무 긴장돼.

## C 교과서 기타 대화

p.011

- 01 T 02 F

- 01 Thompson 씨는 중립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02 Will과 Dan은 Noah를 소외시켰다.

## C 교과서 핵심 대화 확인 문제

p.012

- 01 ③ 02 ④ 03 I think it's because she's a good listener.

- 01 스트레스는 문제를 더 악화시킨다고 했으므로 빈칸에는 ③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이 중요해'가 적절하다.  
 ① 너는 얼굴을 만지면 안 돼                      ② 너는 도시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해

- ④ 좋은 피부과 전문의를 찾는 게 나아    ⑤ 순한 클렌저로 얼굴을 씻는 게 중요해  
 02 주어진 문장은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라는 뜻으로, Julie의 주변에 사람들이 많은 이유로 감사를 잘 표현하기 때문이라는 여학생의 말에 남학생이 동의하며 이어서 Julie는 다른 사람들을 잘 칭찬한다고 덧붙이는 흐름이 자연스럽게 주어진 문장은 ④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03 '나는 ~라고 생각해'는 'I think (that) + 주어 + 동사'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은 a good listener로 표현한다.

## G 교과서 핵심 문법

p.013-014

- 01 What                      02 Taking a bath

- 01 주어가 없는 불완전한 절로 문장의 주어 역할을 해야 하므로 관계대명사 what이 적절하다.  
 나를 놀라게 한 것은 그녀의 나쁜 태도였다.  
 02 부사절 접속사를 생략하고, 부사절과 주절의 주어가 같고 동사의 시제가 같으므로 부사절의 주어를 생략한 후 동사는 현재분사로 바꿔 쓴다.  
 목욕을 한 후에 나는 녹차 한 잔을 마셨다.

## G 교과서 핵심 문법 확인 문제 1

p.015

- 01 (1) what (2) that (3) that (4) what  
 02 (1) what they write about you  
 (2) what is mostly useless in real life  
 (3) What surprised me was the fact  
 03 (1) That → What  
 (2) which → what  
 (3) what → which[that]  
 (4) the thing what → the thing which[that] 또는 what

- 01 (1)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절이 이어지고 선행사가 없으므로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what이 적절하다.  
 그건 우리가 합의한 게 아니잖아.  
 (2)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절이 이어지고 선행사(The skirt)가 있으므로 목적격 관계대명사 that이 적절하다.  
 Jane이 산 치마는 정말 예뻐.  
 (3) 주어가 없는 불완전한 절이 이어지고 선행사(a box)가 있으므로 주격 관계대명사 that이 적절하다.  
 내 남동생은 장난감을 보관할 수 있는 상자가 필요해.  
 (4)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절이 이어지고 선행사가 없으므로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what이 적절하다.  
 소년은 그가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 침대 밑을 샅샅이.  
 02 (1) 관계대명사 what절이 전치사 to의 목적어로 쓰였다.  
 (2) 관계대명사 what절이 목적어로 쓰였으며 '실생활에서'는 in real life로 표현한다.  
 (3) 관계대명사 what절이 주어로 쓰였으므로 단수동사를 쓴다.  
 03 (1) That 뒤에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절이 이어지고 문장의 주어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That을 관계대명사 What으로 고쳐 써야 한다.  
 그가 말한 것은 사실이였다.  
 (2) which 앞에 선행사가 없고 뒤에는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절이 이어지므로 which를 관계대명사 what으로 고쳐 써야 한다.  
 양초와 장미는 Ryan이 Lauren에게 준 것이다.  
 (3) what 앞에 선행사(a photo)가 있고 뒤에는 주어가 없는 불완전한 절이 이어지므로 what을 주격 관계대명사 which나 that으로 고쳐 써야 한다.  
 나는 Ashley가 찍은 사진에 관한 에세이를 썼다.  
 (4) 관계대명사 what은 선행사를 이미 포함하고 있으므로 the thing what을 the thing which[that]나 what으로 고쳐 써야 한다.  
 완벽함은 그 회사가 지난 5년간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생산할 때 가장 신경 썼던 것이다.

- 01 (1) 영화를 보는 내내 팝콘을 우적대서 나는 점심을 먹을 생각이 없었다.  
 (2) 기쁨에 소리를 지르면서 Kelly는 더 타임스와 인터뷰할 기회를 가진 것을 자축했다.  
 (3) 그들 앞의 바다에서 떠오를 때 태양은 그들의 얼굴을 따뜻하게 하기 시작했다.
- 02 (1) (Being) Sitting at the cafe with her friends  
 (2) Not feeling well  
 (3) Having missed my flight
- 03 (1) If you walk down this street  
 (2) Because[As/Since] they had little time left  
 (3) After we had finished our homework
- 04 Billy standing up, the chair fell over.

- 01 (1) 문맥상 ‘~해서’라는 의미의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다.  
 (2) 문맥상 ‘~하면서’라는 의미의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다.  
 (3) 문맥상 ‘~할 때’라는 의미의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다.
- 02 (1) 부사절의 접속사와 주어를 생략한 후 부사절의 시제가 주절의 시제와 같으므로 부사절의 동사를 현재분사로 바꿔 쓴다. 이때 분사구문이 「being + 현재분사」로 시작하므로 being은 생략할 수 있다.  
 친구들과 카페에 앉아 있는 동안 Paige는 부엌에 불을 켜 둔 것이 갑자기 생각났다.  
 (2) 부사절의 접속사와 주어를 생략한 후 부사절의 시제가 주절의 시제와 같으므로 부사절의 동사를 현재분사로 바꿔 쓰고, 분사구문의 부정어는 분사 앞에 not을 써서 표현한다.  
 몸이 좋지 않아서 Wilson은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었다.  
 (3) 부사절의 접속사와 주어를 생략한 후 부사절의 시제가 주절의 시제보다 앞서므로 부사절의 동사를 「having + 과거분사」로 바꿔 쓴다.  
 비행기를 놓쳤기 때문에 나는 공항에서 밤을 새야 했다.
- 03 (1) 문맥상 ‘~라면’이라는 의미가 자연스러우므로 접속사는 If가 적절하며, 부사구가 현재분사인 것으로 보아 부사구의 시제와 주절의 시제가 같으므로 Walking을 walk로 바꿔 쓴다.  
 이 길을 따라 걸어 내려가면 당신은 당신의 왼편에서 그 건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2) 문맥상 ‘~ 때문에’라는 의미가 자연스러우므로 접속사는 Because[As/Since]가 적절하며, 부사구가 현재분사인 것으로 보아 부사구의 시제와 주절의 시제가 같으므로 Having을 had로 바꿔 쓴다.  
 남은 시간이 거의 없어서 그들은 공항까지 서둘러야 했다.  
 (3) 문맥상 ‘~ 후에’라는 의미가 자연스러우므로 접속사는 After가 적절하며, 부사구가 「having + 과거분사」인 것으로 보아 부사구의 시제가 주절의 시제보다 앞서므로 Having finished를 과거완료인 had finished로 바꿔 쓴다.  
 숙제를 끝낸 후 우리는 축구를 하러 나갔다.
- 04 부사구의 주어(Billy)와 주절의 주어(the chair)가 다르므로 분사구문에서 주어를 생략할 수 없다.

01 T      02 T

- 01 Sara는 그녀의 오해에 대해 사과하기 위해 이 편지를 썼다.  
 02 인간관계는 국가와 상관없이 보편적인 문제인 것처럼 보인다.

- 01 working      02 wondering      03 stand up to  
 04 what you should do      05 came up with  
 06 not just[only]      07 but also      08 representative

- 09 criticizing      10 that      11 asking      12 lend  
 13 much      14 so      15 explained what happened  
 16 of      17 as      18 to like      19 for  
 20 came to the same conclusion      21 were invited      22 be given  
 23 dislike      24 was in danger of      25 running  
 26 (A)fterward      27 how much they liked the researcher  
 28 Despite the fact that      29 whom      30 what  
 31 cognitive dissonance      32 broken      33 the other  
 34 lending      35 (As) Feeling anxious and unhappy  
 36 doing      37 himself      38 with      39 asking  
 40 change

- 01 ②      02 ④      03 ③  
 04 (1) relieve (2) besides (3) cognitive (4) fund      05 host      06 ①  
 07 The chances are that interest rates will rise.  
 08 It's important not to forget you are a valuable person.      09 ②  
 10 ③      11 it's important for you to make them understand  
 12 ①      13 ②  
 14 It's important to clear up any misunderstandings.      15 ③  
 16 it's vital not to be stressed out      17 the thing(s) which[that]  
 18 ②      19 ①  
 20 (1) Removing her glasses  
 (2) (Being) Walking on the beach  
 (3) Not having heard the news  
 21 ③      22 ④      23 ③  
 24 (1) When Jessie saw the accident ahead  
 (2) As[Because/Since] the dog was frightened by the thunder  
 (3) After Marco had driven 200 miles across country  
 25 What the children need most is someone who will listen to them.  
 26 ②      27 what → which      28 Playing a computer game  
 29 ③      30 ⑤      31 ③  
 32 because of what psychologists refer to as      33 ②      34 ④  
 35 ⑤      36 ⑤      37 how much they liked the researcher  
 38 ②      39 ②      40 ②      41 ⑤  
 42 not just in politics and science, but also in his ability      43 ②  
 44 ②      45 ①

- 01 ①③④⑤는 반의어 관계이고, ②는 유의어 관계이다.  
 ① 칭찬하다 : 비판하다      ② 고마워하는  
 ③ 긍정적인 : 부정적인      ④ 효과적임 : 효과적이지 않은  
 ⑤ 경쟁자 : 지지자
- 02 ④ conflict는 ‘충돌, 분쟁’이라는 의미로 ‘사람들, 단체들, 국가들 등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의견의 일치나 논쟁이 있는 상태’라는 영영 풀이는 적절하지 않으므로 agreement를 disagreement로 바꿔 쓰는 것이 적절하다.  
 ① threaten(위협하다): 누군가에게 해나 문제를 일으키겠다고 말하다  
 ② award(지급하다): 누군가에게 상이나 돈과 같은 것을 공식적으로 주다  
 ③ impression(인상): 누군가 혹은 어떤 것에 대해 갖는 의견이나 감정  
 ⑤ phenomenon(현상): 사회, 과학, 또는 자연에서 발생하거나 존재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
- 03 그 정당의 충실한 지지자들은 후보자들 사이의 그러한 의견 충돌을 참고 견뎠다.  
 ① 예산(안)      ② 정치인      ④ 감사; 감상; 공감      ⑤ 하원의원; 대표(자)
- 04 (1) relieve(완화하다): 문제를 덜 어렵거나 덜 심각하게 만들다  
 (2) besides(게다가): 당신이 언급하는 누군가나 그 밖의 어떤 것 외에  
 (3) cognitive(인지의): 어떤 것을 알고, 인식하고, 학습하는 과정과 관련된  
 (4) fund(자금): 특정 목적을 위해 모금되고 보관되는 금액

- 05 '진행자; 주최하다'는 의미는 host로 표현한다.  
 • Leno는 'The Tonight Show'의 진행자로 Johnny Carson을 대신했다.  
 • 그 도시는 올해 3일 동안의 영화제를 주최할 것이다.
- 06 ① 문맥상 '서둘러! 시간이 얼마 없어!'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 자연스러우므로 running out of가 되는 것이 적절하다. run into는 '뛰어들어가다; ~와 충돌하다; ~와 우연히 만나다'는 의미이다.  
 ② 내 어머니는 형과 내가 언쟁할 때 결코 어느 편도 들지 않으신다.  
 ③ 나라들은 외교를 통해 그들의 다름을 해결해야 한다.  
 ④ 아이들은 아프고 번거로운 고장 났으니 내가 스트레스 받는 것도 당연하지!  
 ⑤ Evans 부부는 그들의 자녀들이 모두 성장하면 보스턴에 가서 살 계획이다.
- 07 '아마 ~일 것이다'는 「(the) chances are (that) + 주어 + 동사」로 표현하고, '금리'는 interest rates로 표현한다.
- 08 '(~가)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it's important (+ for 목적격) + not + to 부정사」로 표현한다.  
 A: 요즘 나는 기분이 우울해.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B: 상황을 긍정적인 면으로 접근하고 긍정적인 자기대화를 연습하도록 노력해 봐.
- 09 「try + 동명사」는 '시험 삼아 한번 해보다'는 의미이므로 '~하려고 노력하다'는 의미의 「try + to 부정사」 형태가 되도록 ⑥ getting을 to get으로 고쳐 써야 한다.
- 10 주어진 문장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라는 의미로 이때 this problem은 ③ 앞 문장의 내용을 가리키므로 주어진 문장은 ③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11 '(~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it's important (+ for 목적격) + to 부정사」로 표현하고, '~가 ...하도록 만들다'는 「사역동사 make + 목적어 + 목적격보어(동사원형)」로 표현한다.
- 12 Will에게 우울해 보인다면 무슨 일이 있는 건지 묻는 흐름이 자연스러우므로 '우울해 보인다'는 의미의 look down이 되도록 ④ watch를 look으로 바꿔 쓰는 것이 적절하다.
- 13 타동사 answer는 전치사 없이 바로 뒤에 목적어가 나오므로 ② answer to를 answer로 고쳐 써야 한다.
- 14 '(~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it's important (+ for 목적격) + to 부정사」로 표현하고, '~을 말끔히 정리하다'는 clear up으로 표현한다.
- 15 여드름이 고민인 여학생과 이야기하는 상황이므로 ③ '여드름이 있는 다른 학생들을 보면 너는 행운이라고 느낄 거야.'는 대화의 전체 흐름상 어색하다.
- 16 '(~가)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it's vital (+ for 목적격) + not + to 부정사」로 표현하고, '스트레스를 받다'는 be stressed out으로 표현한다.
- 17 관계대명사 what은 the thing(s) which[that]로 바꿔 쓸 수 있다. 학생들은 그녀가 그녀의 학급에게 쓴 것을 읽었다.
- 18 접속사 없이 두 문장이 연결된 분사구문으로 문맥상 부사구와 주절의 주어가 일치하고, 부사구와 주절의 시제가 같으므로 빈칸에는 현재분사인 ② Having이 적절하다.  
 저녁을 먹는 동안 그들은 새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했다.
- 19 ①은 빈칸 앞에 선행사 the smart phone이 있고, 뒤에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절이 이어지므로 목적격 관계대명사 which 또는 that이 적절하고 ②③④⑤는 빈칸 앞에 선행사가 없고 뒤에는 불완전한 절이 이어지므로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what이 적절하다.  
 ① 이것이 내가 어제 산 스마트폰이야.  
 ②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③ 조사관들은 그 재난을 일으킨 것들을 종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④ 인생에서 가장 큰 즐거움은 사람들이 네가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을 하는 것이다.  
 ⑤ 과학자들이 인지라고 부르는 것은 정신 상태와 활동을 모두 포함하는 일반 범주이다.
- 20 (1) 부사절의 접속사와 주어를 생략한 후 부사절과 주절의 시제가 같으므로 부사절의 동사를 현재분사로 바꿔 쓴다.  
 안경을 벗으면서 교사는 실감함에 고개를 가로저었다.  
 (2) 부사절의 접속사와 주어를 생략한 후 부사절과 주절의 시제가 같으므로 부사절의 동사를 현재분사로 바꿔 쓴다. 이때 분사구문이 「being + 현재분사」로 시작하므로 being은 생략할 수 있다.

- 해변을 걸으면서 Eleanor는 해변에 떠밀려 온 해파리를 피해 다녔다.  
 (3) 부사절의 접속사와 주어를 생략한 후 부사절의 시제가 주절의 시제보다 앞서므로 부사절의 동사를 「having + 과거분사」로 바꿔 쓰고, 분사구문의 부정은 부사 앞에 not을 써서 표현한다.  
 그 소식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Owen은 무슨 일이 있는 건지 몰랐다.
- 21 ③ 선행사(your car)가 있고 뒤에는 주어가 없는 불완전한 절이 이어지므로 what을 주격 관계대명사 which나 that으로 고쳐 써야 한다.  
 ① 제가 저지른 일을 사과합니다.  
 ② Gale은 내가 찾던 것을 발견했다.  
 ③ 밖에 주차되어 있는 차가 네 차니?  
 ④ 나는 그녀가 말하고 있었던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⑤ 베품시장에서 내가 산 것은 아들을 위한 장난감이었다.
- 22 주절과 주어가 달라 주어를 생략하지 않은 분사구문으로 문맥상 '~ 때문에'라는 의미가 자연스러우므로 접속사는 As나 Because 정도가 적절하며, 부사구가 현재분사인 것으로 보아 부사구의 시제와 주절의 시제가 같으므로 not working을 과거시제 부정형인 didn't work로 바꿔 써야 한다.  
 내 시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나는 그것을 고쳐지게 했다.
- 23 ③은 '무슨, 어떤'이라는 의미의 의문사이고, ①②④⑤는 '~하는 것'이라는 의미의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이다.  
 ① 그 접수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이 아니었다.  
 ②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건 내 딸이다.  
 ③ Charlie는 내가 무슨 책을 읽었는지 몰랐다.  
 ④ 내가 상점에서 구입한 것은 Andy를 위한 선물이었다.  
 ⑤ 나는 우연히 Peter와 Jessica가 얘기하는 것을 들었다.
- 24 (1) 접속사는 문맥상 '~할 때'를 의미하는 When 정도가 적절하며, 부사구가 현재분사인 것으로 보아 부사구와 주절의 시제가 같으므로 Seeing을 과거시제인 saw로 바꿔 쓴다.  
 Jessie가 앞에서 발생한 사고를 보았을 때, 그녀는 차를 세웠다.  
 (2) 접속사는 문맥상 '~ 때문에'를 의미하는 As, Because, Since 정도가 적절하며, 부사구가 현재분사인 것으로 보아 부사구와 주절의 시제가 같으므로 Being을 과거시제인 was로 바꿔 쓴다.  
 그 개는 천둥소리에 겁을 먹어서 탁자 아래에 숨었다.  
 (3) 접속사는 문맥상 '~ 후에'를 의미하는 After 정도가 적절하며, 부사구가 「having + 과거분사」인 것으로 보아 부사구의 시제가 주절의 시제보다 앞서므로 Having driven을 과거완료인 had driven으로 바꿔 쓴다.  
 200마일을 가로질러 운전한 후에 Marco는 도착해서 그 집이 팔렸다는 걸 알게 되었다.
- 25 '~하는 것'은 관계대명사 what으로 표현하고 what절이 주어로 쓰였으므로 단수 동사인 is로 써야 한다.
- 26 분사구문으로 접속사는 생략하고 문맥상 부사구와 주절의 주어가 같으므로 부사구의 주어를 생략한 후, 주어(the player)가 행위의 대상이고 부사구와 주절의 시제가 같으므로 부사구의 동사는 「being + 과거분사」가 되는 것이 적절하다. 이때 being은 생략 가능하므로 과거분사로 시작하는 분사구문으로 쓸 수 있다.
- 27 what 앞에 선행사(The animal hospital)가 있고 뒤에는 주어가 없는 불완전한 절이 이어지므로 what을 주격 관계대명사 which로 고쳐 써야 한다.  
 애완동물 먹이를 파는 그 동물 병원은 24시간 운영한다.
- 28 4단어로 써야 하므로 접속사와 주어를 생략한 분사구문으로 쓴다.
- 29 선행사(someone)가 단수이므로 ③ do를 단수동사인 does로 고쳐 써야 한다.
- 30 마지막 문장에서 이런 현상을 확인해 보기 위해 한 심리학자가 실험을 했고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고 했으므로 이 글 뒤에는 당신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관계 개선에 더 효과적이라는 내용과 관련한 실험 내용이 이어질 것임을 알 수 있다.
- 31 접속사 없이 두 문장이 연결된 분사구문이며, 부사구의 생략된 주어(he)가 행위의 주체이므로 ⑥ Felt를 현재분사 Feeling으로 고쳐 써야 한다.
- 32 '~때문에'는 because of로 표현하고, '~하는 것'은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what을 이용하여 영작한다.
- 33 우리의 생각과 행동 사이에 생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둘 중 하나를 바꾼다는

흐름이 자연스러우므로 ② cause(~을 야기하다)를 relieve(완화하다) 정도로 바꿔 쓰는 것이 적절하다.

- 34 프랭클린의 경쟁자는 자신이 싫어하는 프랭클린에게 친절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곤란함을 느꼈고 불안하고 불쾌감을 느꼈다고 했으므로 ④는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 35 과거의 특정 시점(연구원을 평가했음)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일어난 동작(연구원의 사적인 부탁을 들어줌)은 과거완료로 표현해야 하므로 ⑤ has done을 had done으로 고쳐 써야 한다.
- 36 (A) 학생들에게 무례하게 대함으로써 그 연구원을 싫어하게 만들었다는 흐름이 자연스러우므로 rude(무례한)가 적절하다. (nice: 친절한)  
 (B) 예산이 고갈되고 있기 때문에 돈의 일부를 돌려 달라고 했다는 흐름이 자연스러우므로 '고갈되다'는 의미의 run low가 되도록 low(적은, 부족한)가 적절하다. (run high: 고조되다, 격해지다)  
 (C) 연구원에게 돈을 반납하여 개인적인 호의를 베풀었던 그룹이 연구원을 가장 높이 평가했다고 했으므로 돈을 돌려 달라는 연구원의 부탁을 들어준 후에 그 연구원에게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는 흐름이 되도록 positive(긍정적인)가 적절하다. (negative: 부정적인)
- 37 rate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의문사 + 주어 + 동사」 어순의 간접의문문으로 쓰고 '얼마나'라는 의미의 의문사는 how much로 표현한다.
- 38 연구원은 학생들에게 무례하게 행동함으로써 학생들이 자신을 싫어하도록 만들었다고 했으므로 빈칸에는 ② '그에 대한 나쁜 인상을 가지고 있었다'가 적절하다.  
 ① 심각한 실수를 했다  
 ③ 매우 정중하게 부탁을 받았다  
 ④ 그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이 내키지 않았다  
 ⑤ 평가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짜증났다
- 39 ⑥ 「stand up to + 명사」는 '~에 맞서다'라는 의미이다.
- 40 leave는 목적격보어로 형용사나 현재분사를 쓰므로 ② to wonder를 wondering으로 고쳐 써야 한다.
- 41 사이가 원만하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질문하는 주어진 글 다음에 (C) 프랭클린이 이에 대한 답을 생각해 냈는데 (B) 프랭클린이 자신을 비판하는 경쟁자의 생각을 바꾸기로 결심하고 나서 (A) 경쟁자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 그에게 호의를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다는 내용의 예시가 이어지는 흐름이 자연스럽다.
- 42 'A뿐만 아니라 B도'는 「not just A but also B」로 표현하고, '~에서'는 전치사 in으로 표현한다.
- 43 프랭클린의 경쟁자는 프랭클린에게 편지를 받고 나서 바로 책을 보냈다고 했으므로 ②는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 44 비교급을 수식하는 비교급 강조 부사가 들어가야 하므로 ② many는 적절하지 않다.
- 45 (A) 프랭클린이 자신의 자서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했다는 흐름이 자연스러우므로 autobiography(자서전)가 적절하다. (bibliography: 참고 문헌)  
 (B) 경쟁자에게 작은 부탁을 함으로써 친절을 베풀 기회를 줬다는 흐름이 자연스러우므로 asking(요청하다)이 적절하다. (answer: 대답하다)  
 (C) 오늘날 이 현상은 벤자민 프랭클린 효과로 알려져 있다는 흐름이 자연스러우므로 as(~으로)가 적절하다. (to: ~에게)

- 24 ②      25 ③      26 left → leaving  
 27 he gave them what he had      28 ②      29 ②      30 ④  
 31 leave you wondering what you should do      32 ③      33 ⑤  
 34 ④  
 35 The police officer came to the conclusion that the woman was lying.  
 36 ④      37 ③  
 38 This speech was so powerful that it threatened Franklin's political career.  
 39 ③      40 ⑤      41 ④      42 ④      43 ②  
 44 After he lent Franklin the book  
 45 The easiest way for him to do that was to change how he thought about Franklin.

- 01 ① criticize(비판하다): 누군가 혹은 어떤 것에 대해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하다  
 ② opponent(경쟁자): 대회, 경기, 싸움, 혹은 논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사람  
 ③ grateful(고마워하는): 누군가가 한 어떤 친절한 일 때문에 그 사람에게 감사하고 싶다고 느끼는  
 ④ experiment(실험): 특정 환경에서 누군가나 어떤 것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아내기 위해 또는 특정 생각이 사실인지 알아내기 위해 행하는 과학적인 검사  
 ① 자연스러운; 당연한
- 02 effective(효과적인): 의도된 방식으로 성공적이고 잘 작동하는
- 03 grow up(성장하다): 아거나 어린 아이에서 더 나이 든 아이나 어른으로 바뀌다  
 ① 우리는 가스가 다 떨어졌어.  
 ② 너는 크면 뭐가 되고 싶니?  
 ③ 나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았다.  
 ④ Patrick은 사람들이 소곤소곤 말할 때 말을 알아듣는 데 어려움이 있다.  
 ⑤ 그 남자는 지도자였고 다른 이들에 의한 부당한 대우에 맞섰다.
- 04 '편을 들다'는 take sides로 표현한다.
- 05 ⑤의 phenomenon은 '경이로운 사람'이라는 의미이고, ①②③④의 phenomenon은 '현상'이라는 의미이다.  
 ① 범죄는 복잡한 사회적 현상이다.  
 ② 언어는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현상이다.  
 ③ 똑같은 현상이 플로리다에서 관찰되었다.  
 ④ 식량 위기는 상당히 세계적인 현상이다.  
 ⑤ 70세의 나이에 아직도 하루에 5마일을 뛰는 그 남성은 정말 경이로운 사람이었다.
- 06 ①②③④는 '동사: 명사'의 관계이고, ⑤는 '형용사: 명사'의 관계이다.  
 ① 완화하다: 경감      ② 무시하다: 무지  
 ③ 비판하다: 비평      ④ 정당화하다: 정당화  
 ⑤ 심리적인: 심리학자
- 07 '감사; 공감'이라는 의미는 appreciation으로 표현한다.  
 • Kate는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시계를 받았다.  
 • Louis는 내가 직면한 문제들에 공감하지 못했다.  
 ① 평가하다; 속도; 요금; 비율      ② 충돌; 충돌하다  
 ③ 인상; 감동      ⑤ 하원의원; 대표자; 대표적인
- 08 praise는 '칭찬하다'는 의미이므로 '비판하다'는 의미의 criticize가 반의어이다. 그 비평가는 그 영화를 자신이 지금껏 본 영화 중 가장 최고의 영화 중 하나라고 칭찬했다.  
 ① 정당화하다 ② ~할 만하다 ③ 위협하다 ④ 지급하다
- 09 Will과 Dan이 매일 방과 후에 수학 공부를 위해 만나자 Noah가 소외감을 느꼈을 거라고 추측하는 흐름이 자연스러우므로 '~을 제외하다'는 의미의 leave out이 되도록 ④의 in을 out으로 바꿔 쓰는 것이 적절하다. leave in은 '안에 있는 대로 놔두다'는 의미이다.

**T** 내신 1등급 대비 2회

p.036~047

- 01 ①      02 (e)ffective      03 ②      04 take sides  
 05 ⑤      06 ⑤      07 ④      08 ④      09 ④      10 ②  
 11 It's important that you clear up any misunderstandings.  
 12 ②      13 ④      14 ④      15 ③  
 16 I think it's important to  
 17 The exam was what was worrying Tom.      18 ③      19 ⑤  
 20 ①, ⑤      21 ③      22 Learning how to concentrate      23 ⑤

- 10 동사 think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간접의문문이므로 「의문사 + 주어 + 동사」의 어순이 되어야 한다. 생각동사가 나오고 있으므로 의문사는 문두에 위치하고 is he behaving을 he is behaving으로 고쳐 써야 한다.
- 11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It's important that + 주어 + 동사」로 표현한다.
- 12 Noah는 학교에서 Will을 계속 피하고 문자에 답도 하지 않는다고 했으므로 ㉔는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 13 중립을 유지하고 싶다는 것을 알리라고 말하는 흐름이 자연스러우므로 ㉔ natural(자연의)을 neutral(중립적인) 정도로 바꿔 쓰는 것이 적절하다.
- 14 빈칸 뒤에 '당신은 중립을 유지하길 원한다는 것을'이라는 내용이 이어지고 충고를 하는 표현이 들어가야 하므로 빈칸에는 ㉔ '당신은 그들이 이해하도록 만드는 게 중요해요'가 적절하다.
- ① 제 생각에 당신은 너무 내성적이예요  
 ② 당신의 친구들은 당신에게 말하지 않는 게 필수예요  
 ③ 제가 당신이었다면 저는 선생님께 요청하려 갔을 거예요  
 ⑤ 저는 당신이 말하지 않는 게 좋은 생각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 15 대화 초반부에 남자가 Teen Worries Solutions라고 프로그램 이름을 소개하고 있으며 전화로 청취자인 여학생의 고민을 듣고 해결해 주고 있으므로 두 사람의 관계로는 ㉓ '프로그램 진행자 - 청취자'가 가장 적절하다.
- ① 변호사 - 의뢰인                      ② 의사 - 환자  
 ④ 식당 주인 - 손님                    ⑤ 채용 담당자 - 구직자
- 16 '나는 (~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는 「I think it's important (+ for 목적격) + to부정사」로 표현한다.  
 A: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  
 B: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
- 17 주격보어로 '~하는 것'이라는 의미의 관계대명사 what을 이용한다.
- 18 ㉓ 부사구의 생략된 주어(Larry)가 행위의 주체이므로 Straightened를 현재분사인 Straightening으로 고쳐 써야 한다.
- ① 절에 들어가기 전에 신발을 벗어야 합니다.  
 ② 모든 사항을 고려하고 나서 나는 차를 팔기로 결정했다.  
 ③ 넥타이를 조여 매면서 Larry는 심호흡을 하고 "나는 할 수 있어."라고 말했다.  
 ④ 올리브 오일과 마늘에 하루밤 재우고 난 후 고기의 토막 살은 오븐에 넣을 준비가 되었다.  
 ⑤ 이틀간 샤워를 하지 못해서 Patrick은 욕실에 몹시 가고 싶었다.
- 19 ㉔ 앞에 선행사 the tall girl이 나오고 뒤에 주어에 없는 불완전한 절이 이어지므로 빈칸에는 주격 관계대명사 who 또는 that이 적절하다.
- ① 이게 내가 원하던 거니?  
 ② Sally는 Fred가 그녀에게 준 것을 먹었다.  
 ③ 이걸 Jacob이 찾던 것이다.  
 ④ 그녀는 내가 그녀의 생일 선물로 준 것을 매우 좋아했다.  
 ⑤ 방금 걸어 들어온 키가 큰 소녀의 이름은 뭐니?
- 20 부사절의 접속사와 주어를 생략한 후 부사절의 시제가 주절의 시제보다 앞서므로 부사절의 동사를 「having + 과거분사」로 바꿔 쓴다. 이때 분사구문이 「having been + 과거분사」로 시작하므로 having been은 생략할 수 있다.  
 3년이 넘도록 실직 상태여서 나는 취직이 어렵다는 걸 알게 되었다.
- 21 (A)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절이 이어지고 앞에 선행사가 없으므로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what이 적절하다.  
 그는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 생각하지 못했다.  
 (B) 주어에 없는 불완전한 절이 이어지고 앞에 선행사(The restaurant)가 있으므로 주격 관계대명사 that이 적절하다.  
 모퉁이에 있는 그 식당은 항상 붐빈다.  
 (C)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절이 이어지고 앞에 선행사가 없으므로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what이 적절하다.  
 스페인식 오믈렛은 내가 점심으로 먹은 것이다.
- 22 접속사를 생략하고 문맥상 부사구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 일치하므로 주어를 생략한 후, 부사구의 시제가 주절의 시제와 같으므로 현재분사를 쓴다. '~하는 법'은 「how + to부정사」로 표현한다.
- 23 ㉔는 '어떤, 무엇'이라는 의미의 의문사이고, ①②③④는 '~하는 것'이라는 의미의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이다.  
 ① 내가 원하는 건 살이 찌는 것이다.

- ② 저는 제가 진심으로 믿는 걸 추구하고 싶습니다.  
 ③ 내 친구 Sara는 내가 원하는 걸 항상 알고 있다.  
 ④ 그 여자는 자신이 가진 것에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  
 ⑤ 졸업하고 나면 무엇을 할 건지 그만 좀 물어봐!
- 24 ㉔ 접속사는 문맥상 '~ 때문에'를 의미하는 As나 Because 정도가 적절하며, 과거의 특정 시점에 일어난 일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현재완료로 쓰는 것이 적절하다.  
 ㉔ 부사절의 접속사와 주어를 생략한 후 부사절의 시제가 주절의 시제보다 앞서므로 부사절의 동사를 「having + 과거분사」로 바꿔 쓰고, 분사구문의 부정은 분사 앞에 not을 써서 표현한다.  
 나는 그 책을 직접 읽은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로 네게 의견을 줄 수가 없어.
- 25 ㉓ 앞에 선행사(The only thing)가 있고 뒤에는 주어에 없는 불완전한 절이 이어지므로 what을 주격 관계대명사 that으로 고쳐 써야 한다.  
 ① 이곳은 Paul이 태어난 집이다.  
 ② 그는 모든 이에게 존경받는 사람이다.  
 ③ 날 깨어 있게 하는 유일한 것은 커피이다.  
 ④ 그 뮤지컬은 Jordan이 본 것이 아니었다.  
 ⑤ Tori가 내민 제안은 꽤 흥미로웠다.
- 26 부사구의 생략된 주어(you)가 행위의 주체이므로 left를 현재분사인 leaving으로 고쳐 써야 한다.  
 열차에서 내릴 때 소지품을 모두 챙기는 걸 기억하세요.
- 27 'A에게 B를 주다'는 「give + A(간접목적어) + B(직접목적어)」로 표현하며 이때 직접목적어인 '~하는 것'이라는 의미는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what을 이용한다.
- 28 접속사 없이 두 문장이 연결된 분사구문으로 문맥상 부사구와 주절의 주어 일치하므로 생략하고, 부사구의 시제가 주절의 시제와 같으므로 빈칸에는 현재분사인 ㉔ Talking이 적절하다.  
 나와 이야기를 나누고 나면 나는 항상 내 문제들이 해결될 거라고 느껴.
- 29 당신이 잘 지내지 못했던 사람은 당신과 항상 언쟁했던 사람이었을 수도 있다고 추측하는 흐름이 자연스러우므로 '~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의미의 「could have + 과거분사」가 되도록 ㉔ must를 could로 바꿔 쓰는 것이 적절하다.
- 30 주어진 문장은 '당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혼란스러웠던 적이 있다면 당신만 그렇게 느낀 것이 아니다.'라는 내용으로 다행스럽게도 프랭클린이 이에 대한 답을 생각해 냈다는 내용이 뒤에 이어지는 흐름이 자연스러우므로 주어진 문장은 ㉔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31 '~가 ...한 상태에 있게 하다'는 「leave + 목적어 + 목적격보어(형용사[현재분사])」로 표현하고 7단어로 써야 하므로 '무엇을 해야 할지'는 what you should do로 표현한다.
- 32 수어동사 give는 4형식인 「give + 간접목적어 + 직접목적어」나 3형식인 「give + 직접목적어 + to + 간접목적어」의 어순으로 쓰므로 ㉔ to the man을 the man으로 고쳐 써야 한다.
- 33 주어진 문장은 '당신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당신을 좋아하게 만들고 싶다면, 흔히 당신이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내용으로 뒤에 However가 나와 주어진 문장과 상반되는 내용이 이어지는 흐름이 자연스러우므로 주어진 문장은 ㉔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34 빈칸 뒤에 프랭클린이 자신의 경쟁자에게 작은 부탁을 함으로써 그 경쟁자가 자신에게 친절을 베풀 기회를 제공했고, 그 이후 그들은 친구가 되었다는 내용이 이어지므로 빈칸에는 ㉔ '당신에게 한 번 친절을 베풀 사람은 당신에게 또 다른 친절을 베풀 준비가 되어 있다.'가 적절하다.  
 ① 당신을 존중하는 사람이 스스로를 존중할 줄도 안다.  
 ② 길에서 장애물 몇 개에 부딪히지 않는 친구들은 드물다.  
 ③ 사람들의 좋은 면에 집중하고 그들의 목표가 무엇인지 고려하라.  
 ⑤ 당신이 싫어하는 사람에게 친절할 일을 하면 당신은 그들에게서 보상을 받을 것이다.
- 35 '결론에 이르다'는 come to a conclusion으로 표현한다.
- 36 (A) 프랭클린은 사람들을 다루는 능력도 뛰어났다는 흐름이 자연스러우므로 '~을 다루다'는 의미의 deal with가 되도록 with가 적절하다. (deal in: 거래하다, 받아들이다)

- (B) 펜실베이니아주의 하원의원으로 일했다는 흐름이 자연스러우므로 representative(하원의원)가 적절하다. (representation: 묘사; 대의권)  
 (C) 프랭클린이 매우 희귀하고 귀중한 책을 빌려 달라고 했다는 흐름이 자연스러우므로 rare(희귀한)가 적절하다. (common: 평범한)
- 37 수식 대상(a letter)과 능동 관계이므로 ③ asked를 현재분사인 asking으로 고쳐 써야 한다.
- 38 '너무 ~해서 ...하다'는 「so + 형용사[부사] + that + 주어 + 동사」로 표현한다.
- 39 연구 자금이 바닥날 위기에 처했다고 설명했다는 흐름이 자연스러우므로 '~의 위기에 처한'이라는 의미의 in danger of가 되도록 ③ case를 danger로 바꿔 쓰는 것이 적절하다.
- 40 (A) 수식 대상(money)과 수동 관계이므로 과거분사 promised가 적절하다.  
 (B) 「be asked + to부정사」로 표현하므로 to return이 적절하다.  
 (C) 뒤에 명사구가 이어지므로 전치사 Despite가 적절하다.
- 41 그룹 1은 돈의 일부를 반납했다고 했으므로 ④는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 42 ⓐⓑⓒⓓ는 명사절 접속사이고, ⓔ는 지시형용사이다.
- 43 앞에 선행사(something)가 있고 뒤에는 목적이 없는 불완전한 절이 이어지므로 ② what을 목적격 관계대명사 that으로 고쳐 써야 한다.
- 44 접속사 After를 그대로 쓰고, 주절의 주어에 맞게 부사절의 주어는 he로 쓴 후, 부사구가 현재분사인 것으로 보아 부사구의 시제와 주절의 시제가 같으므로 lending을 과거시제인 lent로 바꿔 쓴다.
- 45 to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로 「for + 목적격」을 쓰고, change의 목적으로 「의문사 + 주어 + 동사」 형태의 간접의문문을 쓴다.



## 수능형으로 끝내기

p.048~053

01 ②	02 ③	03 ②	04 ③	05 ③	06 ②
07 ⑤	08 ④	09 ②	10 ③	11 ⑤	12 ③
13 ④	14 ③	15 ②	16 ⑤	17 ③	18 ③

- 01 수식 대상(a long speech)과 능동 관계이므로 ② criticized를 현재분사인 criticizing으로 고쳐 써야 한다.
- 02 빈칸 뒤에 프랭클린이 그 남자에게 매우 희귀하고 귀중한 책을 빌려 달라고 요청했다는 내용이 이어지므로 빈칸에는 ③ '그는 그 남자에게 호의를 부탁하는 편지를 보냈다'가 적절하다.  
 ① 그는 그 남자에게 자신을 비판하는 걸 멈추라고 부탁했다  
 ② 그는 자신이 그 남자에게 했던 것을 사과했다  
 ④ 그는 성공과 성공하는 것에 관한 책을 읽었다  
 ⑤ 그는 자신을 대신해서 그의 비서가 그 남자를 방문하여 그에게 선물을 주도록 시켰다
- 03 프랭클린은 펜실베이니아주의 하원의원이었다고 했으므로 ②는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 04 (A) 비교급을 강조하는 부사가 들어가야 하므로 much가 적절하다.  
 (B) 자동사 happen은 수동태로 쓸 수 없으므로 happened가 적절하다.  
 (C) ask는 목적격보어로 to부정사를 쓰므로 to do가 적절하다.
- 05 주어인 문장은 '오늘날 이런 현상은 벤자민 프랭클린 효과로 알려져 있다.'는 의미로 이때 this phenomenon은 경쟁자가 자신에게 친절을 베풀도록 함으로써 긍정적인 감정을 갖게 하는 것이라고 언급한 ③ 앞의 내용을 가리키므로 주어인 문장은 ③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06 당신이 좋아하지 않는 누군가와와 ⑥관계를 개선하고 싶다면 그 사람에게 ⑥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① 시설, 설비 ..... 도움                      ③ 전문적 기술 ..... 식사  
 ④ 삶의 질 ..... 충고                              ⑤ 근로 조건 ..... 탐승
- 07 '~하기를 고대하다'는 「look forward to + 동명사」로 표현하므로 ⑤ to hear를 to hearing으로 고쳐 써야 한다.
- 08 Sara는 오늘 아침에 Jessica와 대화를 한 후 자신이 오해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했으므로 ④는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 09 Sara는 예나에게 오해해서 미안하다며 사과를 받아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므로 글의 목적으로는 ② '예나를 오해한 일을 사과하기 위해서'가 적절하다.

- ① 예나의 사과를 받아주기 위해서  
 ③ Sara가 소외감을 느끼게 만든 것에 대해 예나를 비판하기 위해서  
 ④ 예나의 생일 파티 초대를 거절하기 위해서  
 ⑤ 많은 관심과 친절로 Sara를 대한 것에 대해 예나에게 고마움을 표하기 위해서
- 10 (A) 자동사 attend는 전치사가 필요 없으므로 전치사 in과 함께 쓰여 '참여하다'는 의미가 되도록 자동사 participate가 적절하다.  
 (B) 간접의문문이 동사 rate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의문사 + 주어 + 동사」의 어순이 되도록 they liked가 적절하다.  
 (C) 과거의 특정 시점(그에게 긍정적인 감정을 가짐)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일어난 동작(그에게 나쁜 인상을 가짐)은 과거완료로 표현해야 하므로 had had가 적절하다.
- 11 '비록 나쁜 인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라는 내용으로 보아 연구원에게 돈을 돌려주고 나서 그에게 더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는 흐름이 자연스러우므로 ⑥ negative를 positive 정도로 바꿔 쓰는 것이 적절하다.
- 12 주어인 문장은 '그는 그 검사에 사비를 들였고 연구가 자금이 바닥날 위기에 처했다고 설명했다'는 내용으로 연구원이 그룹 1에게 상금의 일부를 돌려 달라고 요청한 후 그에 대한 이유로 이어지는 흐름이 자연스러우므로 주어인 문장은 ③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13 부사구의 생략된 주어(Franklin's enemy)가 행위의 주체이므로 ④ lent를 현재분사 lending으로 고쳐 써야 한다.
- 14 우리가 호의를 베풀어 준 사람들에게 더 긍정적으로 느끼는 이유는 인지부조화 때문이라는 주어인 글 다음에 (B) 인지부조화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C) 프랭클린의 경쟁자 역시 프랭클린을 도와준 후 인지부조화를 느껴서 자신의 기분을 해소할 방법을 찾았고 (A)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프랭클린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것이었다는 흐름의 순서가 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 15 ⑥ 프랭클린의 경쟁자가 자신의 생각과 행동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스스로에게 자신이 사실은 프랭클린을 좋아했다고 납득시켰다는 흐름이 자연스러우므로 convinced(설득했다, 납득시켰다)가 적절하다. (convert: 전환시키다, 개조하다)  
 ⑥ 우리는 좋아하지 않는 어떤 일을 할 때 행동과 생각 사이의 균형이 깨진다는 흐름이 자연스러우므로 broken(깨진)이 적절하다. (maintain: 유지하다, 지키다)  
 ⑦ 불안하고 불편한 기분을 해소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찾았다는 흐름이 자연스러우므로 resolve(풀다, 해결하다)가 적절하다. (dissolve: 녹다, 용해되다)
- 16 빈칸 앞부분에 우리는 우리의 행동과 생각이 조화를 이루기를 원한다는 내용이 나오고, 빈칸 뒤에는 만약 이 조화가 깨지면 우리는 그 충돌을 완화하기 위해 둘 중 하나를 바꾼다는 내용이 이어지므로 빈칸에는 인지부조화의 정의를 나타내는 ⑤ '우리의 생각과 행동 사이의 충돌'이 적절하다.  
 ① 당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것  
 ② 당신의 정신 건강에 발생한 문제  
 ③ 당신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어떤 변화  
 ④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
- 17 당신이 누군가와 마찰이 생겼을 때 그들을 무시해야 하는지, 아니면 특히 더 친절하게 대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들에게 맞서야 하는지 묻는 흐름이 자연스러우므로 '~에 맞서다'는 의미의 stand up to가 되도록 ③ against를 up으로 바꿔 쓰는 것이 적절하다.
- 18 (A) '~하는 데 어려움을 겪다'는 「have difficulty + 동명사」로 표현하므로 working이 적절하다.  
 (B) leave는 목적격보어로 형용사나 현재분사를 쓰므로 wondering이 적절하다.  
 (C) 감정 형용사는 주체가 감정을 느낄 때는 수동 의미의 과거분사를 사용하므로 confused가 적절하다.



## 서술형으로 끝내기

p.054~056

- 01 (1) ② → what (2) ⑦ → whom  
 02 After lending Franklin the book  
 03 Feeling anxious and unhappy, he had to find a way to resolve his feelings.  
 04 their feelings toward you



- 05 Chances are my friends are throwing a surprise party for me.
- 06 not just in politics and science, but also in his ability to deal with people
- 07 enough to threaten Franklin's political career
- 08 running
- 09 all three groups were asked to rate how much they liked the researcher
- 10 (A) favor (B) positive (C) impression

- 01 (1) 앞에 선행사가 없고 뒤에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절이 이어지므로 ② that을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what으로 고쳐 써야 한다.  
(2) 관계대명사 that은 전치사와 함께 쓸 수 없으므로 ⑦ that을 목적격 관계대명사 whom으로 고쳐 써야 한다.
- 02 5단어로 써야 하므로 접속사를 쓰고, 주어와 생략한 후, 부사절의 시제와 주절의 시제가 같으므로 현재분사인 lending으로 쓴다.
- 03 14단어로 써야 하므로 접속사를 생략해서 쓰고, 부사절의 시제와 주절의 시제가 같으므로 현재분사인 Feeling으로 고쳐 쓴다.
- 04 「The chances are + (that) + 주어 + 동사」는 '아마 ~일 것이다'라는 의미로 이때 주어 they는 앞 문장에서 언급한 '당신에 대한 그들의 감정'인 their feelings toward you를 지칭한다.
- 05 '아마 ~일 것이다'는 「(the) chances are (that) + 주어 + 동사」로 표현하고, 가까운 미래는 「be동사 + 현재분사」 형태의 현재진행형으로 표현할 수 있다.
- 06 'A뿐만 아니라 B도'는 「not just A but also B」로 표현하고, '~에서'는 전치사 in으로 표현한다.
- 07 '너무 ~해서 ...한'은 「형용사[부사] + enough + to부정사」로 표현한다.
- 08 문맥상 '~을 다 쓰다, ~가 고갈되다'는 의미의 run out of가 적절하고 전치사 of 뒤에 쓰여야 하므로 running이 적절하다.
- 09 '~을 요청받다'는 「be asked + to부정사」로 표현하고 동사 rate의 목적어로 「의문사 + 주어 + 동사」 어순의 간접의문문을 쓴다.
- 10 특히 당신이 약간 싫어하는 누군가의 (A)부탁을 들어주는 행위는 당신이 그들에게 (B)공정적인 (C)인상을 갖도록 만든다.

**R** 교과서 핵심 | 본문 다시 쓰기 p.057-061

- 01 Have you ever known someone you just did not get along with?
- 02 Maybe it was someone you had difficulty working with or it could have been someone you were always arguing with.
- 03 This kind of situation can leave you wondering what you should do.
- 04 Should you ignore them, be extra nice to them, or stand up to them?
- 05 If you have ever been confused about what to do, you are not alone.
- 06 Luckily for us, Benjamin Franklin, the American politician and inventor, came up with an answer more than 200 years ago.
- 07 Benjamin Franklin was a very smart man, not just in politics and science, but also in his ability to deal with people.
- 08 Once, when Franklin was serving as a representative for the people of the state of Pennsylvania, a powerful opponent made a long speech criticizing him.
- 09 This speech was so powerful that it threatened Franklin's political career.
- 10 Franklin decided to try to change his enemy's opinion of him.
- 11 To do this, he sent a letter to the man asking for a favor.
- 12 He asked the man to lend him a very rare and valuable book, one that he knew the man had in his personal library.
- 13 The man, Franklin's enemy, immediately sent him the book.
- 14 Franklin read the book and returned it with a note of thanks.
- 15 The next time Franklin met his enemy, the man was much nicer to him.
- 16 They eventually became friends and remained so for the rest of their lives.

- 17 In his autobiography, Franklin explained what happened.
- 18 Franklin wrote, "He that has once done you a kindness will be more ready to do you another."
- 19 By asking a small favor of his enemy, Franklin gave the man a chance to do him a kindness.
- 20 This turned his enemy into a friend.
- 21 Today this phenomenon is known as the Benjamin Franklin effect.
- 22 It is commonly thought that if you want people who do not like you to like you, you should do favors for them.
- 23 However, if you want to try to create a connection with someone who does not like you, asking that person to do you a favor is more effective.
- 24 To test this phenomenon, a psychologist performed an experiment and came to the same conclusion.
- 25 About 80 students were invited to participate in an experiment and were told they would be given some money after a series of tests.
- 26 A researcher was hired and made the students dislike him by being rude to them.
- 27 The students took the tests and were all awarded the promised money.
- 28 They were then divided into three groups.
- 29 Group 1 was asked by the researcher to return some of the prize money.
- 30 He explained that he had used his own money for the tests and the study was in danger of running out of funds.
- 31 Group 2 was asked by a secretary to return some of the money to the institution because the budget was running low.
- 32 Group 3 was not asked to return any money.
- 33 Afterward, all three groups were asked to rate how much they liked the researcher.
- 34 The people in Group 1, who had done the researcher a personal favor by returning some of the money, rated the researcher the highest.
- 35 Despite the fact that they had had a bad impression of him during the experiment, they had more positive feelings for him after returning "his money."
- 36 How can it be that we feel more positive toward people for whom we do favors?
- 37 It is because of what psychologists refer to as "cognitive dissonance."
- 38 We want our actions and our thoughts to be in harmony.
- 39 When we do something that we do not like, the balance is broken, and we feel unhappy.
- 40 If there is a conflict between our thoughts and our actions (cognitive dissonance), we will change one or the other to relieve the conflict.
- 41 After lending Franklin the book, Franklin's enemy experienced cognitive dissonance.
- 42 He felt troubled because he was doing something nice for someone he disliked.
- 43 Feeling anxious and unhappy, he had to find a way to resolve his feelings.
- 44 The easiest way for him to do that was to change how he thought about Franklin.
- 45 He justified doing the favor by telling himself that Franklin was not a bad person after all and convinced himself that he actually liked Franklin.
- 46 Is there someone with whom you would like to have a better relationship?
- 47 Try asking that person for a small favor, such as lending you a pencil or watching your bag while you go to the restroom.
- 48 Then see if their feelings toward you change.
- 49 The chances are they will.

# 06 The Most Efficient Job in the World

## W 교과서 핵심 어휘 확인 문제

p.064

- 01 ⑤  
 02 (1) expand (2) typical (3) suburb (4) corporation  
 03 load                      04 ④
- 01 ①②③④는 '명사 : 형용사'의 관계이고, ⑤는 '명사 : 동사'의 관계이다.  
 ① 혜택 : 유익한                      ② 종교 : 종교적인  
 ③ 정확(도) : 정확한                ④ 제한, 규제 : 제한하는  
 ⑤ 분배 : 분배하다
- 02 (1) expand(확대되다): 크기가 더 커져서 더 넓은 공간을 채우다  
 (2) typical(전형적인, 대표적인): 특정 그룹이나 물건에서 일반적인 특성이나 자질을 가진  
 (3) suburb(교외): 마을이나 도시의 중심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사는 지역  
 (4) corporation(기업): 단일 조직으로 함께 행동하는 큰 회사나 회사의 그룹
- 03 '실다; 짐'은 load로 표현한다.  
 • 그 기구는 트럭이나 배에 실을 수 있을 정도로 작다.  
 • 그 산악용 자전거들은 튼튼하고 무거운 짐을 나르도록 고안되었다.
- 04 ④ 'Edward의 가장 큰 강점은 인내심의 결여이다.'라는 문장은 문맥상 어색하므로 strength를 weakness 정도로 바꿔 쓰는 것이 적절하다.  
 ① 그들은 보고서의 정확도에 의문을 제기했다.  
 ② 내가 본 걸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③ 그는 우리 반에서 가장 뛰어난 학생이다.  
 ⑤ 전문 사진가의 작품을 사용하는 적절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 C 교과서 핵심 대화

p.065~066

- 01 Have you heard about the president                      02 ③
- 01 '너는 ~에 대해 들어 본 적 있니?'는 「Have you heard about + (동)명사 ~?」로 표현한다.  
 02 ①②④⑤는 '나는 여기에 좀 더 머물 계획이야'라는 의미로 의도나 계획을 나타내는 표현이고, ③은 '나는 여기에 좀 더 머물 것이라고 생각했어'라는 의미로 자신의 생각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 C 교과서 기타 대화

p.067

- 01 F                      02 T
- 01 재능은 직업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02 여자는 인도의 사막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 C 교과서 핵심 대화 확인 문제

p.068

- 01 Have you heard about traffic zebras  
 02 I'm going to go to Varanasi to take a bath  
 03 (C) → (A) → (B) → (D)  
 04 What are you planning to do tomorrow?
- 01 '너는 ~에 대해 들어 본 적 있니?'는 「Have you heard about + (동)명사 ~?」로 표현한다.  
 02 '나는 ~할 것이다'는 「I'm going to + 동사원형」으로 표현하고, '목욕을 하다'는 take a bath로 표현한다.

- 03 인도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묻는 남학생의 말에 (C) 그렇다고 답하며, 많은 것을 봤다고 말하고 (A) 내일 무엇을 할 것인지 묻자 (B) 힌두 사원을 방문할 거라고 답하고 (D) 사원에 들어가려면 복장을 갖추어야 한다는 걸 알고 있는지 묻는 흐름의 순서가 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04 '~할 계획이다'는 「be planning to + 동사원형」으로 표현한다.

## G 교과서 핵심 문법

p.069~070

- 01 had been bought by the company                      02 for
- 01 주어진 문장의 시제가 과거완료이므로 과거완료 수동태인 「had been + 과거분사 + by 행위자」로 쓴다.  
 그 신문에 개발을 위한 부지가 그 회사에 의해 구입되었다고 나와 있었다.  
 02 to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대부분 「for + 목적격」으로 쓰므로 for가 적절하다. 신사는 숙녀가 방에 들어가도록 옆으로 비켜섰다.

## G 교과서 핵심 문법 확인 문제 1

p.071

- 01 (1) The doors had been closed by the staff.  
 (2) Many crops have been planted by the old man.  
 (3) The donations are being collected by us at the moment.  
 (4) The route to my destination was being calculated by GPS.  
 02 (1) had been patented (2) ○ (3) will be being renovated  
 03 ④                      04 are being handed out
- 01 (1) 주어진 문장의 시제가 과거완료이므로 과거완료 수동태인 「had been + 과거분사 + by 행위자」로 쓴다.  
 직원에 의해 문이 닫혔다.  
 (2) 주어진 문장의 시제가 현재완료이므로 현재완료 수동태인 「have been + 과거분사 + by 행위자」로 쓴다.  
 노인에 의해 많은 농작물이 심어졌다.  
 (3) 주어진 문장의 시제가 현재진행형이므로 현재진행형 수동태인 「are being + 과거분사 + by 행위자」로 쓴다.  
 우리에게 의해 현재 기부금이 모금되는 중이다.  
 (4) 주어진 문장의 시제가 과거진행형이므로 과거진행형 수동태인 「was being + 과거분사 + by 행위자」로 쓴다.  
 GPS에 의해 내 목적지로 가는 길이 계산되는 중이었다.
- 02 (1) 주어(about 1,100 inventions)가 행위의 대상이므로 수동태인 had been patented로 고쳐 써야 한다.  
 리포터는 그 남자에 의해 10년간 약 1,100개의 발명품들이 특허를 받았다고 말했다.  
 (2) 주어(Amber)가 행위의 주체이며, 미래의 특정 시점(by next month)까지 상태가 계속되는 것이므로 미래완료진행형인 will have been teaching의 쓰임은 적절하다.  
 Amber는 다음 달이면 그 학교에서 5년간 수업을 한 것이 된다.  
 (3) 주어(The library)가 행위의 대상이므로 미래진행형 수동태인 will be being renovated로 고쳐 써야 한다.  
 도서관은 다음 주에 수리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방문자들에게 개방되지 않을 것입니다.
- 03 ④ 주어(someone)가 행위의 주체이므로 had been taken을 능동태인 had taken으로 고쳐 써야 한다.  
 ① 왜 꽃들이 뽑히고 있었나요?  
 ② 우리는 그 장소를 떠나라는 말을 듣지 못했어.  
 ③ 그 게임은 스포츠 채널에서 방영되는 중이다.  
 ④ Ken은 누군가가 자신의 지갑을 가져갔다는 걸 알아차렸다.  
 ⑤ 두 용의자는 이상한 방식으로 운전되고 있던 차량에서 나타났다.
- 04 주어(The exam papers)가 행위의 대상이며, '~되는 중이다'는 의미로 현재 시점을 나타내는 시간 부사 now가 있으므로 현재진행형 수동태인 「be동사 + being + 과거분사」가 되도록 are being handed out으로 쓴다.

- 01 (1) for (2) of (3) for (4) of
- 02 (1) for children (2) for them to attack (3) of the man (4) ○
- 03 (1) careless of her to lose  
(2) sorry for you to say  
(3) stood aside for me to pass  
(4) too tight for me to open

- 01 (1) 일반적인 형용사 frightening이 있으므로 for가 적절하다.  
Sally는 그 공포 영화를 보는 게 무서웠다.
- (2) 사람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 nice가 있으므로 of가 적절하다.  
소년은 친절하게도 자신의 자리를 할머니에게 양보한다.
- (3) 일반적인 형용사 uncommon이 있으므로 for가 적절하다.  
그가 이 정도 시간 동안 사라지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다.
- (4) 사람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 silly가 있으므로 of가 적절하다.  
내가 현금으로 2천만 달러가 넘는 아파트를 사는 건 어리석은 걸까?
- 02 (1) 일반적인 형용사 small and sharp가 있으므로 for children으로 고쳐 써야 한다.  
재봉틀용 바늘은 아이들이 사용하기에는 너무 작고 너무 날카롭다.
- (2) to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to부정사 앞에 위치하므로 for them to attack으로 고쳐 써야 한다.  
그들이 치안 부대를 공격하는 건 불가능한 것 같다.
- (3) 사람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 brave가 있으므로 of the man으로 고쳐 써야 한다.  
남자는 용감하게도 낯선 사람의 개를 구하기 위해 군데군데 얼어붙은 강에 뛰어들었다.
- (4) 문장의 주어와 to부정사가 행하는 동작의 주체가 다르므로 to부정사 앞에 의미상의 주어 「for + 목적격」의 쓰임은 적절하다.  
캐롤라이나의 봄은 모기가 알을 낳기에 완벽한 환경을 제공한다.
- 03 to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to부정사 앞에 쓰며 대부분 「for + 목적격」의 형태이지만, 사람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가 나올 경우 「of + 목적격」의 형태로 쓴다.

01 T 02 F

- 01 유진은 구직 중이다.
- 02 복원 중앙 연구소는 1939년 동안 존재했다.

- 01 are today being challenged 02 globalization 03 continues
- 04 run by dabbawalas 05 meaning 06 meaning
- 07 arrive at 08 after they pass through several pairs of hands
- 09 pick 10 assigned 11 sending 12 receiving
- 13 to 14 returned 15 in reverse 16 when
- 17 demand 18 (p)resent 19 take 20 with
- 21 who 22 riding 23 for
- 24 depending upon[according to] 25 for 26 (m)eet
- 27 made 28 delivered 29 returned 30 political strife
- 31 error is horror 32 accuracy rate 33 considering 34 carries
- 35 painted 36 where the food comes from 37 (o)utstanding
- 38 efficient 39 (r)elies on 40 It is no surprise
- 41 operating 42 old 43 best

- 01 ① 02 ⑤ 03 ② 04 coupled 05 ①
- 06 present 07 pick up
- 08 Have you heard about a professional sleeper?
- 09 ④ 10 looking forward to visiting India 11 ②
- 12 (C) → (A) → (B) → (D)
- 13 Have you heard about serious traffic jams in China?
- 14 ⑤ 15 ③ 16 ②
- 17 (1) Many books have been written by Harley.  
(2) The window of a parked vehicle had been broken by the boys.  
(3) The mail is being delivered by the postman.  
(4) Was the criminal being chased by the police officers?
- 18 ③ 19 ⑤ 20 ④
- 21 Official actions on healthcare policy have been announced from the government.
- 22 very kind of you 23 ② 24 ④
- 25 (1) The refrigerator has not been fixed yet.  
(2) The new dress is being torn by my cat.
- 26 for the students to choose a leader
- 27 ④ 28 ④ 29 ③ 30 ② 31 ② 32 ⑤
- 33 difficult for them to carry 34 ① 35 ④
- 36 considering that most of the dabbawalas are illiterate
- 37 ② 38 ④ 39 ② 40 ① 41 ② 42 ③
- 43 ④ 44 ②
- 45 When did you send off your application form?

- 01 ②③④⑤는 반의어 관계이고, ①은 유의어 관계이다.  
① 충족시키다 ② 참석함 : 결석함  
③ 수요 : 공급 ④ 약점 : 강점  
⑤ 정확(도) : 부정확
- 02 ⑤ efficient는 '효율적인'이라는 의미로 '어떠한 보상 없이 원하는 결과를 얻는 방법으로 일하거나 작동하는'이라는 영영 풀이는 어색하므로 reward를 waste 정도로 바꿔 쓰는 것이 적절하다.  
① illiterate(문맹의): 읽고 쓰지 못하는  
② approximately(대략): 어떤 수나 양보다 많거나 적게  
③ demonstrate(입증하다): 어떤 것이 사실이거나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 주다  
④ transaction(거래): 어떤 것을 사거나 파는 것과 같은 사업상의 거래나 행위
- 03 그 나라는 수십 년간 내전에 의해 만신창이였다.  
① 요소, 요인 ② 갈등, 다툼 ③ 짐; 부담 ④ 과정, 절차 ⑤ 제한, 규제
- 04 '~와 결합됨'은 coupled with로 표현한다.
- 05 ① depending upon은 '~에 따라'라는 의미이다.  
① 귀하가 선택하는 구역에 따라 표는 17달러에서 45달러입니다.  
② 최근 판매 감소의 결과로 수익이 하락했다.  
③ 시동을 끄려면 같은 과정을 반대로 반복하면 돼.  
④ 그들은 남자가 진흙에 빠져 버린 후에 그를 늪에서 빼냈다.  
⑤ 그 정부의 여성 대변인은 그 사건의 중요성을 축소하려고 했다.
- 06 '현재의; 참석한'이라는 의미는 present로 표현한다.  
• 현재 내 기본 상태로는 어떤 일도 할 수 있어.  
• 회의에 50명이 참석했다.
- 07 '~을 가져오다, ~을 거두어 가다'는 pick up으로 표현한다.
- 08 '너는 ~에 대해 들어 본 적 있니?'는 「Have you heard about + (동)명사 ~?」로 표현한다.
- 09 자연으로 둘러싸인 잊을 수 없는 밤이었다며 사막에서 하룻밤 머무는 것을 적극 추천한다는 흐름이 자연스러우므로 ④ avoid를 stay 정도로 바꿔 쓰는 것이 적절하다.
- 10 '~하기를 고대[기대]하다'는 「look forward to + (동)명사」로 표현한다.

- 11 주어진 문장은 '아그라에 있는 타지마할이 가장 좋았다'는 뜻으로 무엇이 가장 인상적이었는지 묻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자연스러우므로 주어진 문장은 ②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12 (C) 벌꿀 사냥꾼에 대해 들어 본 적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A) 들어 본 적이 없다며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지 묻고 (B) 히말라야 절벽에서 꿀을 채취하는 사람들이라고 답하자 (D)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직업 중 하나인 것 같다고 말하는 흐름이 자연스럽다.
- 13 '너는 ~에 대해 들어 본 적 있니?'는 「Have you heard about + (동)명사 ~?」로 표현한다.
- 14 주어(your car)가 행위의 대상이므로 ㉠ driving을 과거분사인 driven으로 고쳐 써야 한다.
- 15 차가 너무 막혀서 약속 시간에 늦을 것 같으면 교통 체증을 해결해 주는 서비스에 전화하면 된다는 흐름이 자연스러우므로 ③ receiver(수신기)를 reliever(구원자) 정도로 바꿔 쓰는 것이 적절하다.
- 16 내일 무엇을 할 계획인지 묻는 말에 ② '나는 음악 관련 직업을 가질 계획이야.'는 적절하지 않다.  
 ① 나는 영화를 볼 거야.  
 ③ 나는 첸나이 근처의 힌두교 사원을 방문할 계획이야.  
 ④ 나는 블루라군에 가서 온천에서 목욕할 거야.  
 ⑤ 나는 내 친구들과 놀이공원에 갈까 생각 중이야.
- 17 (1) 주어진 문장의 시제가 현재완료이므로 현재완료 수동태인 「have been + 과거분사 + by 행위자」로 쓴다.  
 Harley에 의해 많은 책이 쓰였다.  
 (2) 주어진 문장의 시제가 과거완료이므로 과거완료 수동태인 「had been + 과거분사 + by 행위자」로 쓴다.  
 소년들에 의해 주차된 차량의 창문이 깨졌다.  
 (3) 주어진 문장의 시제가 현재진행형이므로 현재진행형 수동태인 「is being + 과거분사 + by 행위자」로 쓴다.  
 집배원에 의해 우편이 배달되는 중이다.  
 (4) 주어진 문장의 시제가 과거진행형이므로 과거진행형 수동태인 「was being + 과거분사 + by 행위자」로 쓴다.  
 경찰관들에 의해 범죄자가 추적되는 중이었습니까?
- 18 '~하기에 충분히 ...한'은 「형용사 + enough + to부정사」로 표현하고, 문장의 주어와 to부정사가 행하는 동작의 주체가 다르므로 to부정사 앞에 의미상의 주어로 「for + 목적격」을 쓴다.
- 19 주어진 문장의 목적어가 주어로 쓰였고, 시제가 현재진행형이므로 현재진행형 수동태인 「is being + 과거분사 + by 행위자」로 바꿔 쓰는 것이 적절하다.  
 그 팀은 지금 감독에 의해 축하받고 있습니다.
- 20 It(가주어)-to부정사(진주어) 구문으로 의미상의 주어로 「for + 목적격」이 쓰인 문장이다. 사람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문장의 보어로 쓰일 때는 to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of + 목적격」의 형태로 쓰므로 ④ 'foolish(어리석은)'는 적절하지 않다.  
 Jim이 스스로 종이학 접는 것은 \_\_\_\_\_하다.  
 ① 쉬운 ② 지루한 ③ 흥미로운 ⑤ 어려운
- 21 주어(Official actions)가 행위의 대상이므로 have announced를 have been announced로 고쳐 써야 한다.  
 정부로부터 의료 정책에 대한 공식적인 조치가 발표되었다.
- 22 It(가주어)-to부정사(진주어) 구문으로 사람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 kind가 문장의 보어 자리에 위치하므로 to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of + 목적격」의 형태로 써야 한다.  
 나를 태워 주다니 너는 매우 친절했다.
- 23 주어(The gifts)가 행위의 대상이며, 현재 시점을 나타내는 시간 부사 now가 있으므로 빈칸에는 현재진행형 수동태인 「are being + 과거분사」가 적절하다.  
 그 선물들은 지금 개봉되는 중이다.
- 24 ㉠ 의미상의 주어 앞에 일반적인 형용사 large가 있으므로 of the cat을 for the cat으로 고쳐 써야 한다.  
 ㉡ 의미상의 주어 앞에 사람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 considerate가 있으므로 for you를 of you로 고쳐 써야 한다.

- ㉢ 그 토끼는 너무 커서 그 고양이가 덮칠 수 없었다.  
 ㉣ 그는 유명한 화가를 만나서 영광이었다.  
 ㉤ 인생은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시간을 보내기엔 너무 짧다.  
 ㉥ 그 도시는 아기가 태어나기엔 매우 위험한 장소 중 하나이다.  
 ㉦ 네 행동이 그녀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생각하다니 너는 정말 사려가 깊구나.
- 25 (1) 주어(The refrigerator)가 행위의 대상이며, 현재완료와 함께 쓰이는 대표적인 시간 부사 yet이 있으므로 현재완료 수동태인 「has been + 과거분사」로 쓴다.  
 (2) 주어(The new dress)가 행위의 대상이며, 어떤 동작이 현재 진행 중에 있음을 나타내야 하므로 현재진행형 수동태인 「is being + 과거분사」로 쓴다.
- 26 to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보통 「for + 목적격」의 형태로 to부정사 앞에 쓴다.
- 27 신속한 음식 배달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흐름이 자연스러우므로 ㉠ expressive(나타내는)를 express(신속한) 정도로 바꿔 쓰는 것이 적절하다.
- 28 수식 대상(an express food delivery service)과 수동 관계이므로 ㉣ running을 과거분사 run으로 고쳐 써야 한다.
- 29 다바왈라는 도시락을 배달하는 사람이라고 했으므로 ③은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 30 120년이 지난 지금은 도시락이 Mumbai 문화의 독특한 일부가 되었다는 흐름이 자연스러우므로 ㉢ usual(보통의)을 unique(독특한) 정도로 바꿔 쓰는 것이 적절하다.
- 31 주어진 문장은 '왜 Mumbai 근로자들은 사무실로 출근하는 아침에 점심 도시락을 갖고 다니지 않을까'라고 묻는 내용으로 이에 대한 답이 ㉡ 뒤에 이어지고 있으므로 주어진 문장은 ㉡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32 (A) 주어(Those)가 복수이므로 복수동사 are가 적절하다.  
 (B) 접속사 없이 두 문장이 연결된 분사구문이며, 부사구의 생략된 주어(they)가 행위의 주체이므로 현재분사 riding이 적절하다.  
 (C) to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대부분 「for + 목적격」으로 쓰므로 for가 적절하다.
- 33 to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보통 「for + 목적격」의 형태로 to부정사 앞에 쓴다.
- 34 (A) 매일 약 40만 건의 거래를 처리한다는 흐름이 자연스러우므로 transactions(거래)가 적절하다. (transition: 전환)  
 (B) 정확도가 99.99퍼센트에 달한다는 흐름이 자연스러우므로 rate(비율)가 적절하다. (rating: 순위)  
 (C) 이러한 무결점의 비결은 부호화 체계에 있다는 흐름이 자연스러우므로 secret(비밀)이 적절하다. (wonder: 경이로움)
- 35 「주격 관계대명사 + be동사」가 생략된 구문이며, 선행사(a code)와 수동 관계이므로 ㉣ painting을 과거분사 painted로 고쳐 써야 한다.
- 36 '~을 고려[감안]하면'은 considering으로 표현하고 '대부분의'는 「most of the + 복수명사 + 복수동사」로 표현한다.
- 37 다바왈라는 심지어 폭우와 정치 투쟁 중에도 배달한다고 했으므로 ㉡ '다바왈라는 폭우와 사회적 혼란 상황에는 배달하지 않는다.'는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① 다바왈라는 하루에 20만 개의 도시락을 고객의 사무실에 배달한다.  
 ③ 도시락은 99.99퍼센트의 정확도로 배달된다.  
 ④ 다바왈라가 배달에 실패한 일은 거의 생기지 않았다.  
 ⑤ 도시락에는 기호와 색깔 체계를 사용한 정보가 적혀 있다.
- 38 수식 대상(an efficient delivery system)과 능동 관계이므로 ㉣ operated를 현재분사인 operating으로 고쳐 써야 한다.
- 39 현대 기술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역사가 긴 다바왈라처럼 효율적인 배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는 내용의 글이므로 빈칸에는 ㉡ '과거의 방식 중 일부는 여전히 최고의 방법일 수도 있다'가 적절하다.  
 ① 다바왈라의 수가 줄어들 것 같다  
 ③ 부호화 체계가 효율적인 배달 시스템의 열쇠이다  
 ④ 현대 기술이 더 빠르고 정확한 배달을 가능하게 한다  
 ⑤ 옛날 방식은 배달 시스템의 발달을 막을 수 있다
- 40 뒤에 나오는 students는 앞에 있는 several watchmaking schools의 학생들을 뜻하므로 ㉠ whom을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e로 고쳐 써야 한다.

- 41 스위스의 시계 제작 학교 학생들은 전통적인 시계 제작 과정을 배운다고 했으므로 ② '스위스의 시계 제작 학교들은 현대적인 시계 제작 수업을 제공한다.'는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 ① 스위스 최초의 시계 제작 학교는 1800년대 중반에 설립되었다.  
 ③ 이탈리아의 북원 중앙 연구소에서 수업 듣기를 원하는 학생들은 문화재청에 의해 시행되는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④ 부탄의 직물은 화려하고 여러 복잡한 무늬가 있는 것으로 인정받는다.  
 ⑤ 부탄 왕립 섬유 연구소는 부탄 직물의 보존과 활성화에 전념한다.
- 42 스위스, 이탈리아, 부탄에 있는 직업 학교를 소개하는 내용의 글이므로 글의 제목으로는 ③ '전 세계의 직업 학교'가 적절하다.
- ①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에 대한 안내서 ② 직업과 돈 사이의 관련성  
 ④ 교육의 목적과 학교의 역할 ⑤ 명문 사립 기숙 학교들
- 43 (A) 도시락 대부분은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 목적지에 도착한다는 흐름이 자연스러우므로 destination(목적지)이 적절하다. (departure: 출발)  
 (B) 수거한 도시락을 가장 가까운 역으로 가져간다는 흐름이 자연스러우므로 nearest(가장 가까운)가 적절하다. (farthest: 가장 먼)  
 (C) 빈 도시락은 오후 5시까지 수거되고 원래의 주소로 돌려보내진다는 흐름이 자연스러우므로 returned(돌려주다, 반납하다)가 적절하다. (submit: 제출하다; 행복하다)
- 44 사역동사 have는 목적격보어로 동사원형을 쓰므로 ② picking을 pick으로 고쳐 써야 한다.
- 45 '~을 보내다'는 send off로 표현한다.

**T** **내신 1등급 대비 2회** p.092~103

01 ②	02 ③	03 ③	04 As a result of	05 ④
06 ⑤	07 ④			
08 I'm planning to go to Agra and see the Taj Mahal.				09 ④
10 Have you heard of the old saying	11 ②	12 ⑤		13 ③
14 I'm thinking of visiting a Hindu temple		15 ④		16 ③
17 (1) is repairing → is being repaired (2) will have been stayed → will have stayed (3) was being watched → was watching (4) had ruled → had been ruled				
18 ④	19 ③	20 ⑤	21 ②	
22 it is hard for me to go to people				
23 the building had been defended from riots			24 ②	
25 The artifacts were donated by the family of Jones				26 ⑤
27 ②	28 ①	29 ③	30 ⑤	31 ①
32 ⑤	33 ⑤	34 ⑤	35 ②	32 ②
36 it is not easy for workers to find	37 ⑤	38 ②		
39 are picked up	40 ④	41 ⑤	42 ⑤	43 ①
44 Not surprisingly	45 ④			

- 01 ② procedure는 '과정, 절차'라는 의미로 '어떤 것을 하는 특히 부정확하거나 독특한 방법'이라는 영영 풀이는 적절하지 않으므로 incorrect는 correct로 unique는 usual 정도로 바꿔 쓰는 것이 적절하다.
- ① dietary(식단의): 누군가가 먹는 음식과 관련된  
 ③ appropriately(알맞게, 적당하게): 특정 시간, 상황, 또는 목적에 맞춰 정확하거나 적절하게  
 ④ assign(할당하다, 부여하다): 누군가에게 특정 일을 주거나 그들이 특정 사람이나 물건에 대한 책임을 맡게 하다  
 ⑤ satisfaction(만족(도)): 어떤 것을 성취하거나 원했던 것을 얻어서 느끼는 행복감이나 만족감
- 02 carry out은 '수행하다, 처리하다'는 의미로 conduct와 바꿔 쓸 수 있다. 인터뷰는 전화로 진행되었다.
- ① 수여했다; 보여 줬다; 참석했다 ② 확대했다  
 ④ 인지했다; 인정했다 ⑤ 입증했다; 시위했다

- 03 demand(수요): 사람들이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에 갖는 필요나 요구
- ① 늦지 않는 게 이로우 겁니다.  
 ② 아빠는 우는 것이 나약함의 상징이라고 생각했다.  
 ③ 그 와인에 대한 수요는 곧 공급을 앞지를 것이다.  
 ④ 몇몇 언론인들은 정부에게 언론 자유에 대한 규제를 풀어 줄 것을 요청했다.  
 ⑤ 그 남자는 부동산 거래에 스마트 기술을 적용한 선구자이다.
- 04 '~의 결과로'는 as a result of로 표현한다.
- 05 ④ 'Max는 면접관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려는 시도로 자신의 업적을 필요 이상으로 강조했다'는 흐름이 자연스러우므로 '~을 강조하다'는 의미의 play up이 되도록 down을 up으로 바꿔 쓰는 것이 적절하다. play down은 '(문제나 상황) 경시하다'는 의미이다.
- ① 그 차는 모래에 빠졌다.  
 ② 그것은 노인으로서 태어나서 인생을 거꾸로 사는 한 남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③ 세탁소에서 내 정장을 찾아다줄래?  
 ⑤ 그 건축물의 나무 부속품은 태양 위치에 따라서 팽창하거나 수축된다.
- 06 '뛰어난; 미지불된'이라는 의미는 outstanding으로 표현한다.
- 그 도시는 뛰어난 프랑스식 요리로 명성이 자자하다.  
 • 나는 아직 갇아야 할 빛이 약간 있어.
- ① 교외의, 외곽의 ② 효율적인 ③ 문명의 ④ 사려 깊은
- 07 ①②③⑤는 유의어 관계이고, ④는 반의어 관계이다.
- ① 총족시키다 ② 갈등, 다툼  
 ③ 부담 ④ 전형적인, 대표적인 : 이례적인  
 ⑤ 거의 ~ 않는
- 08 '나는 ~할 계획이다'는 'I'm planning to + 동사원형'으로 표현한다.
- A: 인도에서 어디를 가장 먼저 갈 계획이니?
- 09 주어진 문장은 '두 번째로 여러분이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 봐야 한다'는 의미로 Second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아 First에 해당하는 내용 다음에 이어지는 흐름이 자연스러우므로 주어진 문장은 ④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10 '~을 알다'는 hear of로 표현하므로 '너는 ~에 대해 알고 있니?'는 'Have you heard of + (동)명사 ~?'로 표현한다.
- 11 직업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을 알려 주는 내용의 강연이므로 강연의 목적으로는 ② '직업을 선택하는 데 몇 가지 조언을 하기 위해서'가 가장 적절하다.
- ① 직업 소개 회사를 홍보하기 위해서  
 ③ 새로운 기술 개발의 중요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④ 학생들이 상담 분야의 직업을 가질 것을 권장하기 위해서  
 ⑤ 현대 사회에서 몇몇 유명한 직업들을 소개하기 위해서
- 12 일본어를 배울 계획이라고 답하고 있으므로 빈칸에는 ⑤ '너는 이번 여름 방학에 무엇을 할 거니?'가 가장 적절하다.
- ① 너는 취미가 뭐니? ② 너는 전에 일본어를 배운 적이 있니?  
 ③ 여름 방학을 어떻게 즐겼니? ④ 크리스마스 연휴 동안 무엇을 했니?
- 13 인도는 정말 맛있는 나라이고 음식도 맛있다는 흐름이 자연스러우므로 ③ delicate(연약한, 섬세한)를 delicious(맛있는) 정도로 바꿔 쓰는 것이 적절하다.
- 14 '나는 ~할 생각이다'는 'I'm thinking of + (동)명사'로 표현한다.
- 15 여행 가이드가 반바지나 샌들 차림으로는 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려 줬다고 대답하고 있으므로 빈칸에는 ④ '안에 들어가려면 옷을 적절하게 입어야 한다'가 적절하다.
- ① 힌두 사원은 신성한 장소이다  
 ② 인도 사람들은 기도하기 위해 그곳에 머문다  
 ③ 소매치기를 조심해야 한다  
 ⑤ 소는 사원 안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것이 허용된다
- 16 (B) 수면 전문가에 대해 들어 본 적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D) 그런 게 정말 있는지 의심하는 답변이 이어지고 (C) 수면 전문가가 실제로 존재하며, 어떤 일을 하는지 설명하자 (A) 내가 꿈에 그리던 직업이 될 것 같다고 말하는 흐름이 자연스럽다.
- 17 (1) 주어(the fence)가 행위의 대상이므로 is repairing을 현재진행형 수동태인 is being repaired로 고쳐 써야 한다.  
 시끄럽게 해서 미안해요. 울타리를 수리하는 중이어서요.

- (2) 주어(She)가 행위의 주체이므로 will have been stayed를 미래완료인 will have stayed로 고쳐 써야 한다.  
크리스마스쯤이면 그녀는 이곳에 머문 지 두 달이 될 것이다.
- (3) 주어(I)가 행위의 주체이므로 was being watched를 과거진행형인 was watching으로 고쳐 써야 한다.  
부모님이 외출하신 동안 나는 내 남동생을 들었다.
- (4) 주어(the country)가 행위의 대상이므로 had ruled를 과거완료 수동태인 had been ruled로 고쳐 써야 한다.  
그 전쟁이 있기 몇 년 전에 그 나라는 네덜란드에 의해 식민지 지배를 받았다.
- 18 ④ 의미상의 주어 앞에 사람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 brave가 있으므로 of the man의 쓰임은 적절하다.  
그 남자가 아이들이 물에 빠진 것에서 구해 준 것은 매우 용감한 일이었다.
- ① 의미상의 주어 앞에 일반적인 형용사 dangerous가 있으므로 of you를 for you로 고쳐 써야 한다.  
네가 혼자 그 나라를 방문하는 건 위험해.
- ② 의미상의 주어 앞에 사람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 polite가 있으므로 for the girl을 of the girl로 고쳐 써야 한다.  
소녀가 예의 바르게도 나를 강당까지 안내했다.
- ③ 의미상의 주어 앞에 사람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 rude가 있으므로 for the teacher를 of the teacher로 고쳐 써야 한다.  
교사가 소녀의 실수를 비롯한 것은 정말 무례했다.
- ⑤ 의미상의 주어 앞에 사람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 silly가 있으므로 for the company를 of the company로 고쳐 써야 한다.  
그 회사가 무선 충전 기술을 무시한 것은 어리석었다.
- 19 to부정사의 주어(a thorough survey)가 행위의 대상이므로 ③ carry out을 수동태인 be carried out으로 고쳐 써야 한다.  
건물이 정리되고 나면 전문가들은 피해 규모를 밝히고 다시 들어가는 것이 안전하지 확실하기 위해 철저한 조사가 진행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한다.
- 20 It(가주어)-to부정사(진주어) 구문으로 to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로 「of + 목적격」이 쓰였으므로 빈칸에는 사람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인 ⑤ considerate(사려 깊은)이 적절하다.  
그 호텔이 네 택배를 받아 주다니 사려 깊구나.  
① 완벽한 ② 가능한 ③ 욕망있는 ④ 편리한
- 21 ② 자동사 arrive는 수동태로 쓸 수 없으므로 is being arrived를 is arriving으로 고쳐 써야 한다.  
① 누구에 의해서 그 아기는 보살피지는 중이었나요?  
② 그가 탄 비행기는 지금 공항에 도착하는 중이다.  
③ 당신이 도착할 때쯤이면 야구 경기는 끝나 있을 겁니다.  
④ 정부가 조치를 취하기 전에 기름 값은 6퍼센트까지 올랐다.  
⑤ 모든 과학 분야는 이전보다 더 빠르게 일상생활에 적용되었다.
- 22 to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보통 「for + 목적격」의 형태로 to부정사 앞에 쓴다.
- 23 주어(the building)가 행위의 대상이며, 과거의 특정 시점(목적자들이 설명했음)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일어난 일(건물이 지켜졌음)은 과거완료로 표현하므로 과거완료 수동태인 had been defended로 쓴다.
- 24 ①③④⑤ to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보통 「for + 목적격」으로 표현하므로 빈칸에는 for가 적절하고, ②는 사람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 wise가 있으므로 빈칸에는 「of + 목적격」의 형태가 되도록 of가 적절하다.  
① 네가 이 신문을 읽는 건 어려워.  
② Jenny가 염색 작업을 조금 더 오래 유지한 것은 현명했다.  
③ 개들이 소중한 것을 공유할 원하지 않는 것은 아주 정상이다.  
④ 젊은이가 노인 앞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은 그 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여겨지는 관습이다.  
⑤ 그 회사가 이전 임원들의 협력 없이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 25 주어(The artifacts)가 행위의 대상이며, 과거의 특정 시점에 일어난 일은 과거시제로 표현해야 하므로 과거형 수동태인 were donated로 쓴다.
- 26 • 일반적인 형용사 interesting이 있으므로 의미상의 주어는 「for + 목적격」이 되도록 빈칸에는 for가 적절하다.

- 내가 그들이 어떻게 서로를 가르치고 서로에게서 배우는지 보는 것은 흥미로웠다.
- to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of + 목적격」이 쓰였으므로 사람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인 thoughtful(사려 깊은)이 적절하다.  
그 경찰관은 매우 사려 깊게도 내가 집에 가는 길을 찾는 걸 도와줬다.
- 27 주어인 문장은 '그러나 집에서 만든 음식을 점심 식사로 먹는 관행은 지속되고 있다.'는 의미로 ② 앞 문장과 상반되는 내용이므로 주어인 문장은 ②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28 각각의 빈칸 앞에 사람을 지칭하는 선행사가 있고 빈칸 뒤에 주어인 who가 적절하다.
- 29 (A)와 ③의 run은 '운영하다'는 의미로 쓰였다.  
① 모든 버스가 연착되고 있다. ((버스 등이) 운행하다)  
② 너는 George만큼 빠르게 달릴 수 있니? (달리다)  
③ 나는 회사를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 모르겠어. (운영하다)  
④ 잠깐 시동을 걸어 볼래요? (작동시키다)  
⑤ Susan은 고등학교 때 달리기를 했었다. (달리다)
- 30 '~하기를 고대하다'는 「look forward to + (동)명사」로 표현하므로 ⑤ to hear를 to hearing으로 고쳐 써야 한다.
- 31 ②③④⑤는 편지를 끝낼 때 쓰는 말이고, ①은 편지를 시작할 때 쓰는 말이다.
- 32 회사에 대해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은 나오지 않으므로 ② '유진은 그 회사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는 글을 읽고 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다.  
① 유진은 어떤 자리에 지원했는가? (→ 관광 안내원 자리에 지원했다.)  
③ 유진은 학력이 어떻게 되는가? (→ 대학에서 역사를 전공했다.)  
④ 유진의 성격과 능력은 무엇인가? (→ 외국인을 만나 대화하는 걸 좋아한다. 영어와 프랑스어를 잘하고, 우리나라 사적지와 관광 명소를 많이 안다.)  
⑤ 유진은 왜 자신이 그 일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가? (→ 우리나라에 오는 방문객들을 안내하고, 그들을 즐겁게 해 주고, 그들과 유용한 정보를 나눌 수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 33 「주격 관계대명사 + be동사」가 생략된 구문이며, 선행사(their home-cooked meals)와 수동 관계이므로 ⑥ making을 과거분사 made로 고쳐 써야 한다.
- 34 주어인 문장은 '힌두교도는 쇠고기를 먹지 않고, 이슬람교도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고, 자이나교도는 양파와 감자를 먹지 않는다.'는 의미로 힌두교도, 이슬람교도, 자이나교도들이 먹지 않는 음식이 모두 다르다는 뜻이므로 ⑤ 다음 문장에서 그 결과 근로자들이 식당을 찾는 것이 쉽지 않다고 이어지는 흐름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주어인 문장은 ⑤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35 (A) 도시락 배달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서 한 사업가가 점심 배달 서비스를 시작했다는 흐름이 자연스러우므로 demand(수요)가 적절하다. (supply: 공급)  
(B) 몸바이 외곽에 사는 근로자들은 꼭 찬 기차를 타고 아침 일찍 출근하기 때문에 다바왈라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흐름이 자연스러우므로 suburbs(교외, 외곽)가 적절하다. (center: 중심부)  
(C) 종교에 따라 식단에 제한이 있다는 흐름이 자연스러우므로 '~에 따라'는 의미의 depending upon이 되도록 depending이 적절하다. (rely upon: 의지하다)
- 36 to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보통 「for + 목적격」의 형태로 to부정사 앞에 쓴다.
- 37 도시락을 배달했던 절차의 역순으로 빈 도시락이 원래의 주소지로 돌려보내진다는 흐름이 자연스러우므로 ⑤ proceedings(소송 절차)를 procedure(절차, 방법) 정도로 바꿔 쓰는 것이 적절하다.
- 38 자전거를 탄 사람이 오전 9시까지 도시락을 수거하고 나서 (B) 가장 가까운 역으로 가져가면 또 다른 사람이 각각의 도시락을 알맞은 열차에 실어 여러 방향으로 보낸 후 (A) 세 번째 사람이 도시락과 함께 열차에 올라타고, 네 번째 사람이 도착역에서 도시락을 수거하여 고객 사무실로 배달하고 (C) 동일한 사람에 의해 같은 절차를 역순으로 한다는 흐름의 순서가 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 39 문맥상 빈칸에는 오후 5시까지 빈 도시락이 수거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하므로 '수거하다'는 의미의 pick up이 적절하고, 주어(The empty dabbas)가 행위의 대상이므로 수동태로 바꿔 써야 한다.
- 40 다바왈라 대부분이 문맹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 정확도는 놀라운 기록이라는 흐름이 자연스러우므로 ④ including(~을 포함하여)을 considering(~을 고려하면) 정도로 바꿔 쓰는 것이 적절하다.

- 41 (A) 주어(200,000 lunch boxes)가 행위의 대상이므로 수동태가 되도록 과거분사 delivered가 적절하다.  
 (B)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는 that으로 쓸 수 없으므로 which가 적절하다.  
 (C) 「주격 관계대명사 + be동사」가 생략된 구문이며, 선행사(a code)와 수동 관계이므로 과거분사 painted가 적절하다.
- 42 다바왈라 대부분이 문맹이라는 내용과 함께 실수 없는 배달의 놀라운 기록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하므로 빈칸에는 ⑤ '배달 과정에서 종이 한 장도 사용되지 않는다'가 적절하다.  
 ① 그들은 고등 교육을 받았고 똑똑하다  
 ② 인도의 대중교통 시스템이 성장하고 있다  
 ③ 뭍바이는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밀집된 도시 중 하나이다  
 ④ 그 시스템은 배송 대기업들에 상당한 위협이다
- 43 (a)와 ①의 which는 '어떤, 무슨'이라는 의미의 의문형용사로 쓰인 한정사이고, ②③④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⑤는 주격 관계대명사로 쓰였다.  
 ① 너는 어떤 색을 제일 좋아하니?  
 ② 나는 엄마가 요리한 음식을 먹었다.  
 ③ 그건 모든 아이가 좋아할 이야기이다.  
 ④ 그는 6년 전에 산 컴퓨터를 아직도 쓴다.  
 ⑤ 아이들은 광장에 있는 분수에서 놀았다.
- 44 「It is not surprising that + 주어 + 동사」는 '~은 놀랄 일이 아니다'는 의미로 Not surprisingly, ~로 바꿔 쓸 수 있다.
- 45 전 세계 대기업들이 다바왈라 시스템을 배운다고 했으므로 ④ '그들은 세계의 선두적인 회사들로부터 배송 시스템을 연구했다.'는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① 다바왈라 조직은 효율적인 배송 시스템으로 인정받는다.  
 ② 팀워크, 운영 비용, 그리고 거의 완벽한 고객 만족도가 그 조직이 성공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③ 다바왈라는 뛰어난 고객 경험을 제공한다.  
 ⑤ 다바왈라는 기술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최고의 정확도로 기능한다.

 **수능형으로 끝내기**

p.104~109

01 ④	02 ②	03 ②	04 ③	05 ①	06 ①
07 ⑤	08 ④	09 ①	10 ④	11 ③	12 ⑤
13 ④	14 ①	15 ①	16 ④	17 ②	18 ④

- 01 (A) 전치사 없이 목적어(their destination)가 이어지고 있으므로 타동사 reach가 적절하다. arrive는 자동사로 '도착하다'는 의미를 나타낼 때 arrive at으로 표현한다.  
 (B) 접속사 없이 두 문장이 연결된 분사구문이며, 부사구의 생략된 주어 (Another person)가 행위의 주체이므로 현재분사 sending이 적절하다.  
 (C) 주어(The empty dabbas)가 행위의 대상이므로 수동형 are picked가 적절하다.
- 02 여러 사람의 손을 거친 후에 목적지에 도착한다는 흐름이 자연스러우므로 ⑥ away를 '~을 거쳐가다'는 의미의 pass through가 되도록 through로 바꿔 쓰는 것이 적절하다. pass away는 '사망하다, 없어지다'는 의미이다.
- 03 주어진 문장은 '자신에게 배당된 도시락을 모두 수거하여 가장 가까운 역으로 가져간다'는 내용으로 역에 운반된 도시락을 또 다른 사람이 알맞은 열차에 실어 여러 방향으로 보낸다는 내용이 뒤에 이어지는 흐름이 자연스러우므로 주어진 문장은 ②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04 주어(The Central Institute of Restoration)가 행위의 대상으로 '설립되다'는 의미의 수동태가 되어야 하므로 ③ found를 과거분사인 founded로 고쳐 써야 한다.
- 05 빈칸 뒤에 풍부한 색상과 다양한 무늬, 그리고 직조 기술로 인정받는다라는 내용이 이어지므로 빈칸에는 ① '손으로 짠 직물로 유명한'이 적절하다.  
 ② 히말라야산맥 동쪽에 고립된 왕국  
 ③ 국민 총 행복 지수를 평가해서 알려진  
 ④ 늘어난 교통량과 교통 혼잡을 경험하는  
 ⑤ 느리게 외부 세계에 개방하고 있는 여행자의 낙원
- 06 스위스 최초의 시계 제작 학교는 1800년대 중반에 개교했다고 했으므로 ①은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 07 to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앞에 일반적인 형용사 easy가 있으므로 「for + 목적격」의 형태가 되도록 ⑤ of workers를 for workers로 고쳐 써야 한다.
- 08 다른 사람들이 도시락 배달 서비스를 좋아해서 따라 했다는 주어진 글 다음에 (C) 도시락 배달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자 한 사업가가 현재 형태로 배달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A) 다바왈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뭍바이 근로자들은 주로 도시 외곽에 살기 때문에 (B) 아침 일찍 사무실로 출근해야 해서 도시락을 들고 다니기 어려울 수 있다는 흐름의 순서가 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 09 빈칸 다음 문장에서 다바왈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뭍바이 외곽에 살고 있어 아침 일찍 출근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도시락을 가지고 갈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이 이어지므로 빈칸에는 ① '도시락을 가져간다'가 적절하다.  
 ② 집에서 그들의 가족과 아침을 먹는다  
 ③ 생산량이 늘어난 것의 혜택을 잡는다  
 ④ 도시락을 배달하는 적절한 절차를 안다  
 ⑤ 사업을 해서 모든 수익을 스스로 가져간다
- 10 ⑥ 뭍바이에 사는 근로자들이 도시락을 챙기지 않는 이유로 이른 출근 시간을 언급한 다음, 종교에 따라 섭취하는 음식이 달라서 식당을 찾기 힘들다는 내용이 이어지므로 Also(또한)가 적절하다.  
 ⑥ 종교에 따라 먹지 않는 음식이 달라서 결과적으로 사무실 근처에 있는 식당에서 적절한 음식을 찾는 것이 힘들다는 내용이 이어져야 하므로 As a result(그 결과)가 적절하다.  
 ① 하지만 ..... 마찬가지로      ② 게다가 ..... 요약하면  
 ③ 게다가 ..... 하지만          ⑤ 그 결과 ..... 반면에
- 11 다바왈라 조직은 단순하고, 팀워크에 의존하고, 운영비가 저렴하고, 고객 만족도가 높다는 내용이 이어지므로 빈칸에는 ③ outstanding(뛰어난)이 적절하다.  
 ① 고립된    ② 부적절한    ④ 불확실한    ⑤ 구식의
- 12 다바왈라는 팀워크에 의존하고 저렴한 운영비로 첨단 기술의 도움 없이 성공할 수 있었다는 내용의 글이므로 글의 요지로는 ⑤가 적절하다.
- 13 주어진 문장은 '이러한 무결점 시스템의 비결은 부호화 체계에 있다.'는 내용으로 이때 a coding system(부호화 체계)에 대한 설명이 ④ 뒤에 이어지므로 주어진 문장은 ④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14 주어(200,000 lunch boxes)가 행위의 대상이므로 ⑥ delivering을 수동태가 되도록 과거분사 delivered로 고쳐 써야 한다.
- 15 빈칸 뒤에 다바왈라는 99.99퍼센트의 정확도를 자랑한다는 내용이 이어지므로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좌우명이 되도록 빈칸에는 ① '실수는 공포'가 적절하다.  
 ② 당신이 원하는 건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③ 우리의 말은 금만큼 훌륭하다  
 ④ 바로 이곳에서 치유가 시작됩니다  
 ⑤ 시력이 나쁘다고 시야가 좁은 것이 아니다
- 16 점심 도시락이 일주일에 6일간 배달된다고 했으므로 ④는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 17 인도 뭍바이에 있는 점심 도시락 배달원인 다바왈라에 관한 내용의 글이므로 ② '전통적으로 농업적인 관습이 보존되고 있는 시골 지역에서는 가정식 요리들이 여자에 의해 준비된다.'는 문장은 글의 흐름과 관계가 없다.
- 18 점점 세계화가 되고 있는 세상에서 집에서 만든 점심을 먹는 관습을 (A)유지하길 원하는 뭍바이 근로자들은 다바왈라들에 의해 운영되는 점심 배달 서비스에 (B) 의존한다.  
 ① 시작하다 ..... 의존하다      ② 회복하다 ..... 열망하다  
 ③ 계속되다 ..... 움직이다      ⑤ 단절하다 ..... 고용하다

 **서술형으로 끝내기**

p.110~112

- 01 (1) ⑤ → who (2) ⑦ → packed (3) ⑨ → for workers  
 02 ③ (d)emand ⑥ (d)ietary  
 03 be difficult for them to carry their own dabba  
 04 workers, dabbawala, service  
 05 are delivered to offices, are returned home

- 06 error
- 07 illiterate
- 08 loads each dabba onto the right train, sending them off in different directions
- 09 Dabbas, Distributed, Customers
- 10 pick up

- 01 ㉔ 앞에 선행사가 나오고 뒤에 주어에 없는 절이 이어지므로 whose를 주격 관계 대명사 who로 고쳐 써야 한다.
  - ㉕ 수식 대상(train)과 수동 관계이므로 packing을 과거분사 packed로 고쳐 써야 한다.
  - ㉖ to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앞에 일반적인 형용사 easy가 나오고 있으므로 「for + 목적격」의 형태가 되도록 of workers를 for workers로 고쳐 써야 한다.
- 02 ㉔ demand(수요): 사람들이 원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양 또는 사람들이 그것을 원한다는 사실
  - ㉕ dietary(식단의): 누군가가 먹는 음식과 관련된
- 03 to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보통 「for + 목적격」의 형태로 to부정사 앞에 쓴다.
- 04 도시락 배달 서비스인 다바왈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층과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의 글이다.
  - मुंबई 근로자들이 다바왈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유들
- 05 20만 개의 도시락이 사무실로 배달되고,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지는 것이므로 「be동사 + 과거분사」 형태의 수동태로 써야 한다.
- 06 error(실수): 예를 들어 계산이나 의사 결정에서 생기는 잘못
- 07 ‘읽거나 쓰는 법을 모르는’은 ‘문맹의’라는 의미의 illiterate로 표현할 수 있다. 그 나라 사람들의 거의 절반이 글을 읽거나 쓸 줄 모르고 그들 중 많은 이는 16살이 되기 전에 학교를 그만둔다.
- 08 첫 번째 사람이 자신에게 배당된 도시락을 모두 수거한 후에 그것들을 가장 가까운 역에 가져가면 또 다른 사람이 각각의 도시락을 알맞은 열차에 실어 여러 방향으로 보낸다고 설명하고 있다.
  - 도시락을 배달하는 과정에서 두 번째 사람은 무슨 일을 하는가?
  - 그는 각각의 도시락을 알맞은 열차에 실어 여러 방향으로 보낸다.
- 09 점심 도시락이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 목적지에 도달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의 글이다.
  - 도시락이 고객에게 배달되는 방법
- 10 ‘~을 가져오다, ~을 거두어 가다’는 pick up으로 표현한다.

- 11 Finally, a fourth person picks up the boxes at the receiving station and distributes them, again by bicycle, to each customer’s office, all by 12:30 p.m.
- 12 The empty dabbas are picked up by 5:00 p.m. and are returned to their original addresses by the same team, following the same procedure in reverse.
- 13 The dabbawala service began around 1890, when a banker hired a young man to deliver a lunch box from his home to his Mumbai office.
- 14 Other people liked the idea and copied it.
- 15 When demand for the service expanded, a businessman started the lunch-delivery service in its present format.
- 16 Now, more than 120 years later, the dabba is a unique part of the Mumbai culture.
- 17 Why do Mumbai workers not take their lunch boxes with them in the morning, when they leave for the office?
- 18 Those who use the dabbawala service are mostly middle-class office workers who live in one of Mumbai’s suburbs.
- 19 They have to leave for the office early in the morning, riding on a packed train.
- 20 It would be difficult for them to carry their own dabba.
- 21 Also, they often have dietary restrictions, depending upon their religion.
- 22 Hindus do not eat beef, Muslims do not eat pork, and Jains do not eat onions and potatoes.
- 23 As a result, it is not easy for workers to find the right food in restaurants near their office.
- 24 To meet their dietary needs, Indian workers prefer their home-cooked meals, made especially for them.
- 25 Today approximately 5,000 dabbawalas cover 70 square kilometers in and around Mumbai.
- 26 They conduct about 400,000 transactions daily—200,000 lunch boxes are delivered to offices every morning, six days a week, and 200,000 are returned home every afternoon.
- 27 They even deliver in the pouring rain and during political strife.
- 28 Surprisingly, hardly any cases of late or mistaken delivery are ever reported.
- 29 Their motto is “error is horror.”
- 30 The dabbawalas are proud of their 99.99 percent accuracy rate, which means just one mistake in every six million deliveries.
- 31 It is an amazing record, considering that most of the dabbawalas are illiterate and that not a single piece of paper is used in the delivery process.
- 32 The secret to this error-free system is in a coding system.
- 33 Each dabba carries a code, painted with different colors, numbers, and symbols.
- 34 These codes tell the dabbawala where the food comes from and which railway stations it must pass through on its way to a specific office in a specific building, in Mumbai.
- 35 The dabbawala organization is an outstanding example of an efficient distribution system.
- 36 It is simple, relies on teamwork, has a low operating cost, and delivers almost 100 percent customer satisfaction.
- 37 It is not surprising, then, that business schools and large corporations around the world learn from the dabbawala system.
- 38 Today, most people cannot imagine an efficient delivery system operating without the benefit of technology.
- 39 Dabbawalas, however, demonstrate that with no form of technology, some of the old ways may still be the best ways.

**R** 교과서 핵심 **본문 다시 쓰기**

p.113-116

- 01 In India, many traditions are today being challenged as a result of globalization.
- 02 The practice of eating a home-cooked meal for lunch, however, continues.
- 03 In Mumbai, many people who work in offices far from home rely on an express food delivery service run by dabbawalas.
- 04 Dabbawalas are delivery men who carry hot lunch boxes for Mumbai office workers from their homes to their offices.
- 05 The word *dabbawala* comes from the Hindi *dabba* meaning “lunch box,” and *wala* meaning “the person who carries it.”
- 06 Most dabbas, or lunches, reach their destination after passing through several pairs of hands.
- 07 A typical scenario would have one person on a bicycle pick up a dabba by 9:00 a.m. from about thirty different addresses.
- 08 After collecting all of the dabbas assigned to him, he takes them to the nearest train station.
- 09 Another person loads each dabba onto the right train, sending them off in different directions.
- 10 A third person rides on each of the trains with the dabbas.



# 최종점검 모의고사

## Lesson 05 독해 실전 모의고사

p.118~125

01 ①	02 ⑤	03 ③	04 ②	05 ③	06 ⑤
07 ②	08 ⑤	09 ④	10 ⑤	11 ③	12 ③
13 ④	14 ⑤	15 ②	16 ④	17 ②	18 ①
19 ③	20 ④	21 ④	22 ②	23 ③	24 ④
25 ③					

- 01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 여러분의 감정을 누군가에게 말하는 것, 휴식을 취하는 것 세 가지를 통해 스트레스 수준을 줄일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빈칸에는 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다.
- ② 짧은 휴식을 취하는 것                      ③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④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                      ⑤ 함께 얘기할 친구가 있는 것
- 02 (A) 규칙적으로 신체 운동을 하는 것이 수면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흐름이 적절하므로 enhance(향상시키다)가 적절하다. (disturb: 방해하다)  
(B) 숙면을 취하면 스트레스 받는 일을 더 잘 다룰 수 있다는 흐름이 적절하므로 handle(다루다)가 적절하다. (worsen: 악화시키다)  
(C)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 여러분의 감정을 누군가에게 말하는 것, 휴식을 취하는 것 세 가지를 통해 스트레스 수준이 줄어든 수 있다는 흐름이 적절하므로 decrease(줄어들다)가 적절하다. (increase: 증가시키다)
- 03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몇 가지 내용을 조언하는 글이므로 ③ '사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대중 앞에서 말할 수 밖에 없을 때 매우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말한다.'는 문장은 글의 전체 흐름과 관계가 없다.
- 04 성공적인 삶에서 더욱 중요한 사항인 효과적인 스트레스 관리 방법을 몇 가지 소개하는 내용의 글이므로 글의 주제로는 ②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한 몇 가지 방법들'이 적절하다.
- ① 스트레스 수준을 측정해야 하는 이유  
③ 운동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들  
④ 스트레스 받는 상황을 직면해야 하는 불가피한 순간들  
⑤ 건강과 성공 간의 긍정적인 상관관계
- 05 주어진 문장은 '당신은 그들을 무시해야 할까, 아니면 그들에게 특별히 상냥해야 할까, 아니면 그들에게 맞서야 할까?'라는 내용으로 잘 어울려 지내지 못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궁금해하는 상황에 대한 부가 설명이므로 주어진 문장은 ③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06 밑줄 친 부분은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뜻으로 여러분 혼자만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워 했던 것이 아니라 의미이며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생각해 냈다는 내용이 이어지므로 밑줄 친 부분이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잘 지내지 못하는 누군가와 무엇을 할지 알지 못한다'이다.
- ① 다른 사람들은 또한 그들 자신의 상황 때문에 혼란스럽게 느낀다.  
② 여러분은 곤란에 처할 때마다 여러분의 가족을 의지할 필요가 있다.  
③ 여러분 주변의 몇몇 사람들은 여러분을 지지하고 여러분과 잘 일할 수 있다.  
④ 여러분은 여러분이 잘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몇몇 도움이 되는 조언들을 얻을 수 있다.
- 07 (a) 벤자민 프랭클린은 정치와 과학에서만 아니라, 사람을 다루는 능력에 있어서도 매우 똑똑한 사람이었다는 흐름이 자연스러우므로 '다루다'는 의미의 deal with가 되도록 deal이 적절하다. (compete with: ~와 겨루다, 경쟁하다)  
(b) 프랭클린의 경쟁자가 했던 프랭클린을 비판하는 연설이 너무 강력해서 그의 정치 경력을 위협했다는 흐름이 자연스러우므로 endangered(위협했다)가 적절하다. (promote: 증진시키다)

- (c) 프랭클린이 책을 빌리고 감사 쪽지와 함께 돌려준 행동 이후에 경쟁자가 그에 더 우호적이 되었다는 흐름이 자연스러우므로 friendly(우호적인)가 적절하다. (unfriendly: 비우호적인)
- 08 프랭클린이 사람을 다루는 능력에서도 영리한 사람이었다는 주어진 글에 이어서 (C) 그와 관련된 한 예시로 프랭클린이 펜실베이니아주의 하원의원이었을 때 강력한 경쟁자로 인해 곤란한 상황에 처했던 내용이 바로 뒤에 오고 (B) 프랭클린이 자신의 적이 자신에 대해 가진 의견을 바꾸기 위해 호의를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다는 내용이 이어진 후 (A) 부탁하는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제시되는 내용이 마지막으로 오는 순서가 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 09 ⑥는 '프랭클린'을 가리키고, 나머지는 모두 '프랭클린의 강력한 경쟁자'를 가리킨다.
- 10 주어진 문장은 '이것이 그의 경쟁자를 친구로 바꿨다.'는 내용으로 이때 This는 프랭클린의 적을 친구로 바꾼 계기를 가리키며, 이는 문맥상 작은 부탁을 함으로써 경쟁자가 프랭클린에게 친절을 베풀 기회를 주었다는 내용이 되어야 하므로 주어진 문장은 ⑥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11 벤자민 프랭클린이 그의 경쟁자가 그에 대해 가졌던 의견을 바꾸기 위해 책을 빌려달라고 요청했고, 경쟁자가 즉시 책을 보내주자 그 책을 읽은 후 감사 쪽지와 함께 책을 돌려줌으로써 그가 원했던 대로 경쟁자의 의견을 바꿀 수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③ '벤자민 프랭클린의 경쟁자는 결국 프랭클린이 그의 경쟁자가 하길 원했던 일을 했다'는 글의 내용과 일치한다.
- ① 벤자민 프랭클린은 경쟁자를 비판하는 것을 포함해서 많은 영역에서 재능이 있었다.  
② 벤자민 프랭클린은 그가 그의 경쟁자에게 호의를 베풀 것이라는 내용의 편지를 그의 경쟁자에게 보냈다.  
④ 벤자민 프랭클린의 경쟁자는 프랭클린이 그에게 호의를 베풀 후에 그에게 더 친절하게 되었다.  
⑤ 벤자민 프랭클린은 다른 누군가에게 자신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쓰게 했다.
- 12 벤자민 프랭클린은 사람을 다루는 능력에서도 영리한 사람이어서 자신의 적에게 작은 부탁을 요청함으로써 그를 자신의 친구로 만들었다는 내용의 글이므로 글의 제목으로는 ③ '우리의 적에게 작은 부탁을 요청하는 것의 힘'이 적절하다.
- ① 힘으로 여러분의 적들을 정복하라  
② 사업에서 성공하게 되는 것의 비결  
④ 벤자민 프랭클린 효과: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호의에 대한 이유  
⑤ 벤자민 프랭클린: 정치와 과학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 중 한 명
- 13 벤자민 프랭클린 효과는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2)반대하는 사람에게 부탁을 요청함으로써 그 사람과 (1)친밀감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① 경쟁 ..... 유사한                                      ② 적대감 ..... 반대하는  
③ 우정 ..... 무관심한                                      ⑤ 경쟁 ..... 유사한
- 14 받은 돈의 일부를 돌려줌으로써 연구원에게 개인적인 호의를 베풀어 사람들이 그 연구원을 가장 높게 평가했다는 내용입니다 ⑤ unfavorable(비호의적인)을 favorable(호의적인) 정도로 바꿔 쓰는 것이 적절하다.
- 15 여러분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호의를 베풀게 하는 것이 그 사람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 효과적이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한 심리학자가 연구를 수행했고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는 내용의 주어진 글에 이어서 (B) 실험 참가자들과 실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오고 (A) 실험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이어진 후 (C) 실험 결과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이 마지막에 오는 순서가 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 16 고용된 연구원이 학생들에게 무례하게 행동해서 그를 싫어하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연구원에게 돈을 돌려준 사람들은 그 연구원을 가장 높게 평가했다는 내용입니다 빈칸에는 ④ '그들이 실험 동안 불쾌하게 느꼈었다'가 적절하다.
- ① 예산이 부족해지고 있었다  
② 그 비서는 모든 학생들을 만나지 않았다  
③ 학생들은 전에 서로를 알지 못했었다  
⑤ 실험의 목적은 알려지지 않았다
- 17 비서는 그룹 2에게 받은 돈의 일부를 돌려달라고 연락했을 뿐, 그 이후 실험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언급되어 있지 않으므로 ② '비서가 그룹 3에게 연구원을 평가해달라고 요구했다'는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 ① 그룹 2는 예산 부족으로 인해 연구소로 일부 돈을 반환하도록 요청받았다.
  - ③ 연구자는 고의적으로 학생들을 무례하게 대했다.
  - ④ 참가자들은 실험 후 돈을 받는다고 약속받았다.
  - ⑤ 그룹 1은 다른 집단보다 더 긍정적으로 연구원을 평가했다.
- 18 누군가에게 (a)호의를 베풀었던 사람들은 그 사람에 대해 (b)더 낮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 ② 호의를 요청했다 ..... 더 나쁘게
  - ③ 도움을 요청했다 ..... 더 낮게
  - ④ 친절함을 보여 줬다 ..... 더 나쁘게
  - ⑤ 친절함을 받아들였다 ..... 더 낮게
- 19 프랭클린의 경쟁자가 인지부조화에서 벗어나기 위해 프랭클린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자기 자신에게 말하고, 사실은 자신이 그를 좋아했다고 스스로를 납득시켰다는 내용으로 ③ denied(부인했다)를 justified(정당화했다) 정도로 바꿔 쓰는 것이 적절하다.
- 20 인지부조화라는 용어를 언급하는 주어진 글에 이어서 (C) 인지부조화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오고 (A) 프랭클린의 적이 느낀 인지부조화를 예시로 제시한 후 (B) 프랭클린의 적이 인지부조화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의 생각을 바꾸고 호의를 베풀 행동을 정당화했다는 내용의 순서가 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 21 프랭클린의 적이 인지부조화에서 벗어나기 위해 프랭클린에 대해 가졌던 자신의 의견을 바꿨다는 내용으로 빈칸에는 ④ ‘프랭클린에 대한 자신의 원래 의견을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 ① 프랭클린에게 과도하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
  - ② 프랭클린이 했던 대로 그에게 호의를 요청하는 것
  - ③ 프랭클린의 영원한 호적수가 되는 것
  - ⑤ 프랭클린에 반대하는 합리적인 증거를 찾는 것
- 22 우리의 생각과 행동의 균형이 깨질 때 우리는 불편하게 느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둘 중 하나를 바꾼다는 내용으로 빈칸에는 ② ‘그것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완화하다’가 적절하다.
- ① 그 갈등을 무시하다
  - ③ 균형 잡히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다
  - ④ 우리의 생각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다
  - ⑤ 인지부조화의 이유를 알아내다
- 23 우리는 호의를 베풀 사람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여러분이 더 나은 관계를 갖길 원하는 사람에게 작은 호의를 요청하는 것이 여러분에 대한 그 사람의 감정을 더 좋아지게 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빈칸에는 ③ ‘여러분에 대한 그들의 감정이 변한다’가 적절하다.
- ① 그들의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증가한다
  - ② 그들의 삶의 방식이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친다
  - ④ 그들은 여러분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을 거절한다
  - ⑤ 그들은 좋은 첫인상을 만들려고 노력한다
- 24 프랭클린의 경쟁자가 인지부조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프랭클린이 나쁜 사람이 아니며 사실은 그가 프랭클린을 좋아했다고 스스로를 납득시켰다는 내용으로 ④ ‘프랭클린의 경쟁자는 프랭클린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호의를 베풀 수밖에 없었다고 스스로를 납득시켰다’는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 ① 인지부조화는 사람들이 왜 호의를 베풀 어떤 사람에게 더 긍정적으로 느끼는지 그 이유를 설명한다.
  - ② 프랭클린의 경쟁자는 그가 프랭클린에게 책을 빌려준 이후 불편하게 느꼈는데, 그가 프랭클린에 대한 그의 생각에 따라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③ 프랭클린의 경쟁자가 그의 인지부조화에서 벗어날 가장 쉬운 방법은 프랭클린에 대한 그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었다.
  - ⑤ 여러분이 더 나은 관계를 갖길 원하는 누군가에게 작은 호의를 요청하는 것은 여러분에 대한 그들의 감정이 더 나아지게 될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 25 우리의 생각과 행동 사이에 ㉠불균형이 존재할 때, 우리는 ㉡기꺼이 둘 중 하나를 바꿈으로써 그 갈등을 해결하려 한다.
- ① 일치 ..... 예정인
  - ② 조정 ..... 경향이 있는
  - ④ 불완전 ..... 꺼리는
  - ⑤ 불일치 ..... 있음직하지 않은

01 ③	02 ③	03 ④	04 ⑤	05 ④	06 ⑤
07 ③	08 ②	09 ⑤	10 ④	11 ④	12 ⑤
13 ④	14 ④	15 ④	16 ④	17 ①	18 ④
19 ④	20 ③	21 ②	22 ④	23 ④	24 ⑤
25 ②					

- 01 도시락을 수거하고 배달하기 위해 4명의 다바왈라들이 어떻게 역할 분담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므로 밑줄 친 ‘전형적인 시나리오’의 문맥상 의미로는 ③ ‘도시락을 배달하는 데 있어 일반적인 분업’이 적절하다.
- ① 다바왈라 시스템의 시간 엄수
  - ② 도시락을 수거하는 전형적인 절차
  - ④ 배달을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식
  - ⑤ 배달 서비스의 어려움과 복잡성
- 02 (A) 아침에 30개의 다른 주소지에서 점심 도시락을 수거한다는 내용으로 collect(수거하다)가 적절하다. (distribute: 분배하다)
- (B) 자신에게 할당된 도시락을 모두 수거한 다바왈라가 그 도시락을 가장 가까운 기차역으로 가져간다는 내용으로 allocated(할당된)가 적절하다. (unrelated: 관련 없는)
- (C) 점심 도시락을 모아 배달되던 과정의 역순으로 빈 도시락이 수거되어 되돌려진다는 내용으로 process(과정)가 적절하다. (recess: 휴식)
- 03 주어진 문장은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다바왈라가 도착역에서 도시락을 수거하여 다시 자전거를 타고 12:30까지 각 고객의 사무실로 배달한다’는 내용으로, 세 번째 다바왈라에 대한 설명 바로 뒤에 오는 것이 자연스러우므로 주어진 글은 ④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04 빈 도시락은 오후 5시까지 모아져서 역순으로 원래의 주소지로 돌려보내진다고 했으므로 ⑤ ‘빈 도시락은 점심 시간 바로 직후에 모아져서 각각의 주소로 돌려보내진다’는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 ① 다바왈라는 그의 할당된 지역에서 점심 도시락을 모으기 위해 각각의 집을 방문해야 한다.
  - ② 다바왈라는 아침에 자전거로 약 30개의 점심 도시락을 모은다.
  - ③ 자전거는 점심 도시락을 위한 필수적인 운송수단 중 하나이다.
  - ④ 아침에 모아진 도시락들은 기차로 다른 방향으로 옮겨진다.
- 05 다바왈라들이 도시락을 수거하여 배달하는 과정에 대해 설명하는 글이므로 글의 제목으로는 ④ ‘어떻게 다바왈라가 점심 도시락을 배달하고 수거하는가?’가 적절하다.
- ① 다바왈라는 얼마나 잘 대우받고 돈을 지급받는가?
  - ② 다바왈라: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
  - ③ 뭍바이의 다바왈라의 성공 비결
  - ⑤ 다바왈라 시스템에서 운송수단의 중요성
- 06 뭍바이 근로자들은 아침 일찍 사람들로 꽉 찬 기차를 타고 사무실로 출근해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도시락을 가지고 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흐름이 자연스러우므로 ⑤ difficult(어려운)를 easy(쉬운) 정도로 바꿔 쓰는 것이 적절하다.
- 07 (A) 빈칸 앞에는 아침 일찍 사람들로 꽉 찬 기차를 타고 사무실로 출근을 해야 한다고 했고, 빈칸 뒤에는 종교 때문에 식당에 제약이 있다고 했으므로 빈칸에는 비슷한 내용을 나열할 때 사용하는 연결어 Besides(게다가)가 적절하다.
- (B) 빈칸 앞에는 힌두교도들은 소고기를 먹지 않고, 이슬람교도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고, 자이나교도들은 양파와 감자를 먹지 않는다는 내용이 나오고, 빈칸 뒤에는 근로자들이 사무실 근처의 식당들에서 적절한 음식을 찾는 것이 쉽지 않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으므로, 빈칸에는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연결어 In consequence(결과적으로)가 적절하다.
- ① 또한 ..... 사실상
  - ② 사실상 ..... 요약하면
  - ④ 결과적으로 ..... 또한
  - ⑤ 요약하면 ..... 게다가

- 08 종교에 따라 먹지 못하는 음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사무실 근처 식당에서 적절한 식당을 찾는 것이 어려우며 집에서 요리된 식사를 선호한다는 내용이므로 빈칸에는 ② '그들의 식단 요구를 충족시키다'가 적절하다.
- ① 그들의 식단 요구를 통합하다  
③ 그들의 식사 관행을 바꾸다  
④ 새로운 식사 관행에 적응하다  
⑤ 건강한 식사 습관을 장려하다
- 09 인도에서는 종교로 인한 식단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인도 근로자들은 특별히 자신들을 위해 집에서 요리된 식사를 선호한다는 내용이므로 ⑤ '몬바이 근로자들은 그들의 사무실에서 멀리 떨어진 식당에서 점심을 먹는다'는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 ① 다바왈라 서비스는 한 은행가의 생각으로 시작됐다.  
② 한 사업가가 현재의 배달 형태를 시작했다.  
③ 몬바이 사무실 근로자들의 대부분은 몬바이 교외 지역에 거주한다.  
④ 종교는 몬바이 근로자들의 식단 선택을 제한한다.
- 10 1890년 즈음 몬바이에서 다바왈라 서비스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해 설명하는 글이므로 첫 번째 단락의 제목으로는 ④ '몬바이에서 다바왈라 서비스의 기원'이 가장 적절하다.
- ① 몬바이에서 위협받는 전통  
② 모방은 발명의 어머니이다!  
③ 몬바이 근로자: 세계에서 가장 바쁜 근로자들  
④ 다바왈라 서비스: 세계화의 예시
- 11 몬바이에서 다바왈라 서비스가 시작된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글이므로 두 번째 단락의 제목으로는 ④ '다바왈라 서비스가 몬바이에서 시작되었던 이유'가 적절하다.
- ① 몬바이 다바왈라로부터 무엇을 배우는가?  
② 몬바이 다바왈라는 무엇으로 유명한가?  
③ 특별히 몬바이 근로자들을 위해 집에서 요리된 식사들  
④ 다바왈라 서비스: 종교적이고 식단과 관련된 갈등에서 온 결과
- 12 ㉠의 They는 바로 앞 문장에 나온 colors, numbers, and symbols를 가리키고, 나머지는 모두 '다바왈라'를 가리킨다.
- 13 주어진 문장은 '다바왈라들의 대부분이 문맹이고 배달 과정에 단 한 장의 종이도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감안하면, 그것은 놀라운 기록이다'라는 내용으로 이때 주어진 문장의 주어 it은 다바왈라의 99.99%의 정확성을 가리키고 글의 흐름상 무결점 시스템의 비결인 부호화 체계에 대한 설명 바로 앞에 나오는 것이 자연스러우므로 주어진 문장은 ④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14 (A) 다바왈라가 그들의 99.99%의 정확성을 자랑스러워한다는 내용으로 보아 늦거나 잘못된 배달의 경우는 지금까지 거의 보고되지 않았다는 내용이 되는 것이 자연스러우므로 seldom(거의 ~않는)이 적절하다. (almost: 거의)
- (B) 늦거나 잘못된 배달의 경우가 지금까지 거의 보고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보아 다바왈라의 좌우명은 '실수는 있을 수 없다'라는 내용이 되는 것이 자연스러우므로 unacceptable(받아들일 수 없는)이 적절하다. (acceptable: 받아들이는)
- (C) 다바왈라의 대부분이 문맹이기 때문에 각각의 도시락에 다양한 색깔, 숫자, 기호들로 칠해져 있는 부호들을 통해 다바왈라가 어디에서 도시락이 오고 어디로 배달해야 하는지 알 수 있다는 내용이므로 various(다양한)가 적절하다. (similar: 비슷한)
- 15 다바왈라의 대부분이 문맹이고 배달을 위해 종이 한 장 사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호화 체계 덕분에 배달 실수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으므로 ④ '부호화 체계는 다바왈라가 배달 실수를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 ① 몬바이 근로자들은 다바왈라 덕분에 그들의 집에서 요리된 점심을 먹을 수 있다.  
② 다바왈라는 심지어 나쁜 날씨 조건 하에서도, 일요일을 제외한 매일 그들의 일을 한다.  
③ 다바왈라의 배달 실수에 대한 빈번한 보고를 듣는 것은 흔치 않다.  
④ 부호는 점심 도시락의 다양한 출발 장소, 경유역, 그리고 목적지를 표시하기에 유용하다.

- 16 다바왈라의 도시락 배달의 정확도가 99.99%로 거의 오류가 없으며, 이러한 무결점 시스템의 비결이 부호화 체계 덕분이라는 내용의 글이므로 글의 주제로는 ④ '다바왈라 시스템을 완벽하게 유지하는 비결'이 적절하다.
- ① 몬바이 근로자들이 겪는 어려움  
② 다바왈라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의 높은 비용  
③ 몬바이에서 다바왈라의 사회적 지위  
④ 인도에서 점심 배달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추천
- 17 다바왈라들은 그들이 배달에 대한 정보를 묘사하는 데 있어서 (b)단어들 대신에 부호를 사용하기 때문에 (a)정확하게 그들의 임무를 수행한다.
- ② 쉽게 ..... 용어들                      ③ 자유롭게 ..... 상징들  
④ 부정확하게 ..... 그림들                ⑤ 제한적으로 ..... 어구들
- 18 세계화에도 불구하고 인도에서는 다바왈라에 의해 운영되는 신속 음식 배달 서비스로 집에서 요리된 점심 도시락을 먹는 관행이 계속 유지된다는 내용의 글이므로 ④ '오늘날 인도 사람들은 점점 더 건강 음식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들의 식사를 출퇴근 시 가지고 다닌다'는 글의 전체 흐름과 관계가 없다.
- 19 다바왈라가 몬바이의 사무실 근로자들에게 그들의 집에서 사무실까지 따뜻한 점심 도시락을 가져다주는 배달원이라는 내용이므로 ④ '다바왈라는 몬바이 사무실 근로자들의 집에서 요리된 점심 도시락을 그들의 직장으로 가져다준다'는 글의 내용과 일치한다.
- ① 세계화는 수 십년 동안 인도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야기해왔다.  
② 많은 인도 사람들은 세계화로 인해 그들의 식사 관행을 바꿔 왔다.  
③ 많은 현대 몬바이 사무실 근로자들은 시간 압박 때문에 전통적인 식사보다 패스트푸드를 선호한다.  
④ '다바왈라'라는 단어는 각각 '점심'과 '도시락'을 의미하는 두 개의 힌두어 단어들의 조합이다.
- 20 인도에서는 세계화로 인해 많은 전통들이 도전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요리된 음식을 점심 식사로 먹는 전통이 다바왈라에 의해 운영되는 배달 시스템을 통해 유지된다는 내용의 글이므로 글의 주제로는 ③ '몬바이에 있는 독특한 배달 서비스'가 적절하다.
- ① 오래된 문화를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  
② 다바왈라의 기원과 인기  
③ 몬바이에 있는 다양한 전통 음식들  
④ 세계화로 인해 도전받고 있는 다바왈라
- 21 비록 인도에서 많은 전통들이 (A)변화되고 있는 중이지만, (B)신속 음식 배달 서비스인 다바왈라 서비스는 몬바이의 특별한 부분이 되고 있다.
- ① 불변의 ..... 재빠른                      ③ 변하게 된 ..... 느린  
④ 보존된 ..... 자유로운                      ⑤ 불변의 ..... 느린
- 22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술의 이점 없이 운영하는 효율적인 배달 시스템을 상상할 수 없지만 다바왈라 시스템은 어떤 형태의 기술 없이도 몇몇 예전 방식들이 여전히 최고의 방법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내용이므로 ㉠ with(~을 가지고)를 without(~ 없이) 정도로 바꿔 쓰는 것이 적절하다.
- 23 (A) 빈칸 앞에서 다바왈라 조직이 저렴한 운영비로 거의 100%의 고객 만족도를 만들어 낸다고 했고 빈칸 뒤에서 전 세계의 경영대학원과 대기업들이 그것으로부터 배운다고 했으므로, 빈칸에는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연결어 Therefore(그러므로)가 적절하다.
- (B) 빈칸 앞에서 기술의 이점 없이 운영하는 효율적인 배달 시스템을 상상할 수 없다고 했고, 빈칸 뒤에서 다바왈라 시스템은 어떤 형태의 기술 없이도 몇몇 예전 방식들이 여전히 최고의 방법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했으므로, 빈칸에는 역접의 연결어 However(하지만)가 적절하다.
- ① 사실상 ..... 게다가                      ② 다시 말해서 ..... 그러므로  
③ 하지만 ..... 반대로                        ④ 반면에 ..... 대신에
- 24 다바왈라 시스템은 어떤 형태의 기술 없이도 몇몇 예전 방식들이 여전히 최고의 방법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내용이므로 ⑤ '그것은 높은 정도의 기계적인 기술에 의존한다'는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 ① 그것은 오래되고 단순하지만 효율적인 유통 체계이다.  
② 그것은 개인이 아닌 팀워크에 기초를 둔다.  
③ 그것의 고객들의 대부분은 그것의 서비스에 만족한다.  
④ 전 세계 대기업들이 그것으로부터 배운다.

- 25 다바알라 조직의 성공은 사회적 (a)편의가 (b)전통적인 방식으로 촉진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 ① 통제 …… 놀라운                      ③ 정의 …… 기술적인  
 ④ 혁명 …… 급진적인                    ⑤ 복지 …… 정확한

**Lesson 05 서술형 실전 모의고사** p.134~141

- 01 (a) working (b) wondering (c) confused  
 02 made → came  
 03 He was a politician and inventor.  
 04 벤자민 프랭클린이 생각해 낸 잘 어울려 지내지 못하는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를 개선하는 방법  
 05 ignore  
 06 ① → was serving, ② → that  
 07 autobiography  
 08 By asking a small favor of his enemy, Franklin gave the man a chance to do him a kindness.  
 09 (1) (B)  
 (2) (A) He was good at not just politics and science, but also dealing with people.  
 (C) The man immediately sent him the book.  
 10 (1) A powerful opponent made a long speech criticizing him, which was so powerful that it threatened Franklin's political career.  
 (2) He sent a letter to the man asking the man to lend him a very rare and valuable book.  
 (3) Franklin and his opponent eventually became friends and remained so for the rest of their lives.  
 11 You can be a friend with your enemy by asking him to do you a favor.  
 12 you want people who do not like you to like you  
 13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을 좋아하지 않는 누군가와 관계를 형성하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에게 여러분에게 호의를 베풀도록 요청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14 ② → dislike, ④ → rated, ⑤ → Despite  
 15 the study was in danger of running out of funds  
 16 Therefore → However  
 17 good (impression) → bad  
 18 (a) personal favor (b) more positive  
 19 (a) our actions and our thoughts in harmony  
 (c) resolve his feelings  
 20 action or thought  
 21 to change how he thought about Franklin  
 22 The chances are that they will.  
 23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행동 사이의 충돌  
 24 ① (2)  
 ② 여우는 포도를 먹고 싶어 했으나 포도를 따는 것에 실패하자 포기하며 포도가 신맛이 날 것이라며 자신의 바람과 다르게 말하고 있으므로 인지부조화의 예시로 적절하다.  
 25 (A) like (B) lent (C) thinking (D) balance

- 01 (a) '-하는 데 어려움을 겪다'는 「have difficulty + (동)명사」로 표현하므로 working으로 써야 한다.  
 (b) leave는 목적격보어로 현재분사와 과거분사 모두 사용할 수 있고, 문맥상 목적어 you와 목적격보어의 관계가 능동이므로 현재분사 wondering으로 써야 한다.  
 (c) 문맥상 주어인 you가 혼란스러운 감정을 느끼는 주체이므로 수동 의미의 과거분사 confused로 써야 한다.

- 02 200년도 더 전에 벤자민 프랭클린이 '답을 생각해 냈다'는 내용이 되어야 하므로 '제시하다, 생각해 내다'는 의미의 come up with가 되도록 made를 came으로 바꿔 쓰는 것이 적절하다. make up with는 '화해하다'라는 의미이다.  
 03 do for his living은 '생계를 위해 하다'는 의미로 직업을 묻는 표현이므로 '벤자민 프랭클린은 미국의 정치인이자 발명가였다'는 문장을 이용하여 답할 수 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생계를 위해 무엇을 했는가?  
 → 그는 정치인이자 발명가였다.  
 04 함께 일하는 데 어려움을 겪거나 항상 논쟁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에 대해 벤자민 프랭클린이 답을 생각해 냈다는 내용의 글이므로 이 글 뒤에는 그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이 이어지는 것이 적절하다.  
 05 ignore(무시하다): 의도적으로 누군가나 무언가에 관심을 주지 않다  
 06 ① serve가 '근무하다, 재직하다'의 의미로 쓰인 자동사로 자동사는 수동태로 쓸 수 없으므로 serving으로 고쳐 써야 한다.  
 ② '너무 ~해서 ...하다'는 의미의 「so ~ that ...」 구문이므로 접속사 that으로 고쳐 써야 한다.  
 ③ a letter를 수식하며 문맥상 '편지 내용이 호의를 요청한다'이므로 능동 의미의 현재분사 asking의 쓰임은 적절하다.  
 ④ 선행사 one을 수식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이므로 which의 쓰임은 적절하다.  
 ⑤ 비교급 nicer를 강조하는 부사이므로 a lot의 쓰임은 적절하다.  
 07 autobiography(자서전): 누군가의 삶에 대한 이야기로 그 사람이 직접 쓴 것  
 08 '~함으로써'는 「by + 동명사」로 쓰므로 ask를 asking으로 바꿔 쓰고 「ask + 직접목적어 + of + 간접목적어」의 어순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수여동사인 gave 뒤에는 「간접목적어 + 직접목적어」나 「직접목적어 + to + 간접목적어」의 형태가 모두 가능하지만, 19단어로 영작해야 하므로 「간접목적어 + 직접목적어」 구조로 써야 한다.  
 09 벤자민 프랭클린의 경쟁자가 그를 비판하는 긴 연설을 했다는 내용은 나오지만 그 이유에 대한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으므로 (B) '왜 벤자민 프랭클린의 경쟁자는 그를 위협했는가'는 글을 읽고 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다.  
 (A) 벤자민 프랭클린은 무엇에 능숙했는가? → 그는 정치와 과학뿐만 아니라 사람을 다루는 것에도 능숙했다.  
 (B) 왜 벤자민 프랭클린의 경쟁자는 그를 위협했는가?  
 (C) 프랭클린의 경쟁자는 프랭클린의 요청에 어떻게 반응했는가? → 그 남자는 그에게 그 책을 즉시 보냈다.  
 10 (1) 지문의 This speech 대신 관계대명사 which를 쓰고 앞뒤 문장을 콤마(,)로 연결해서 이어주어야 하는 것에 유의한다.  
 벤자민 프랭클린의 문제는 무엇이었나? → 강력한 경쟁자가 그를 비판하는 긴 연설을 했는데, 그것이 너무 강력해서 그것은 프랭클린의 정치 경력을 위협했다.  
 (2) 현재분사 asking 뒤에 for a favor 대신 the man to lend 이하의 표현을 써야 함에 유의한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했는가? → 그는 그 남자에게 매우 희귀하고 귀중한 책을 그에게 빌려달라고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다.  
 (3) 대명사 주어인 They가 지칭하는 명사인 Franklin and his opponent를 주어로 써야 함에 유의한다.  
 결과는 어떠했나? → 프랭클린과 그의 경쟁자는 결국 친구가 되었고 그들의 남은 인생 동안 그렇게 남았다.  
 11 적에게 호의를 베풀어 친구가 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와 친구가 되다'는 be a friend with로 표현하고, '~함으로써'는 「by + 동명사」로 표현하며 'A에게 B를 요청하다'는 「ask A + to부정사」로 표현한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적에게 호의를 베풀도록 요청함으로써 그와 친구가 될 수 있다.  
 12 '~가 ...하는 것을 원하다'는 「want + 목적어 + to부정사」 구조를 이용하며, 목적어 people를 수식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이 목적격보어인 to like you 앞에 삽입되는 것에 유의한다.  
 13 밑줄 친 부분은 '동일한 결론'이라는 의미로 앞 문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현상을 가리킨다.

- 14 ② 사역동사 made는 목적격보어로 동사원형을 쓰므로 to dislike를 dislike로 고쳐 써야 한다.  
 ④ 문장의 주어 The people in Group 1 뒤에 문장의 동사가 없으므로 rating을 과거시제인 rated로 고쳐 써야 한다.  
 ⑤ the fact that 이하가 명사구이므로 전치사 Despite로 고쳐 써야 한다.  
 ① 문맥상 80명의 학생들이 시험에 초대된 것이므로 수동태 were invited의 쓰임은 적절하다.  
 ③ 설명했던 것보다 돈을 사용했던 것이 먼저 일어난 일이므로 대과거 had used의 쓰임은 적절하다.
- 15 시제가 과거이므로 be를 was로 바꾸고, 전치사 of 뒤에는 동명사를 써야 하므로 running으로 바꿔서 배열한다.
- 16 여러분이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을 좋아하게 하려면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어야 한다고 흔히 생각하지만,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호의를 베풀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내용이므로 Therefore(그러므로)을 However(하지만) 정도로 바꿔 쓰는 것이 적절하다.
- 17 실험을 시작할 때 실험 참가자들에게 무례하게 함으로써 연구원을 싫어하게 만들었다고 했으므로 실험 참가자들이 연구원에 대해 나쁜 인상을 가졌었다는 내용이 되도록 good를 bad 정도로 바꿔 쓰는 것이 적절하다.
- 18 한 실험에 따르면, 여러분이 여러분을 싫어하는 누군가가 여러분에 대한 (b)더 긍정적인 평가를 갖게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a)개인적인 호의를 요청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 19 (a) '균형'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의 행동과 사고의 조화로운 상태'이므로 앞 문장에 나온 our actions and our thoughts to be in harmony에서 to be를 빼 명사구로 쓴다.  
 (b) 문맥상 do that은 앞 문장에 나온 to부정사구의 동사원형 이하를 대신하고 있다.
- 20 문맥상 '충돌이 일어난 행동이나 생각 중 하나'를 의미하므로 앞에 나온 actions and thoughts를 단수형으로 쓰고, 충돌이 발생한 행동과 사고 중 어떤 하나를 표현해야 하므로 접속사도 and에서 or로 바꿔 써야 한다.
- 21 문맥상 '프랭클린에 대해 그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바꾸다'는 내용이 되어야 하고, 빈칸이 주격보어 자리이므로 to부정사로 시작하고 change의 목적어로 「의문사 + 주어 + 동사」 어순의 간접의문문을 써야 한다.
- 22 '그것은 ~할 가능성이 있다'는 「The chances are (that) + 주어 + 동사」로 표현하며 이때 that절의 주어 they는 their feelings toward you를 대신하고 있고, 조동사 will은 will change를 대신하는 대동사이다.
- 23 (cognitive dissonance) 바로 앞에 있는 a conflict between our thoughts and our actions가 인지부조화에 대한 정의를 나타내고 있다.
- 24 인지부조화는 생각과 행동이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충돌하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여우의 생각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내용인 (2)가 인지부조화의 예시로 적절하다.
- (1) Jack은 한 정치가가 그가 원하거나 좋아하는 어떤 일을 하거나 지지하기 때문에 그 정치가를 지지한다. 그래서 Jack은 그가 지지하지 않는 어떤 정치가를 해임하거나 무시하는 것을 선택하는 데 그의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 그가 해야 하는 모든 것은 단지 그가 가장 선호하는 정치가를 계속 지지하는 것이다.  
 (2) 한 여우가 높이 매달려 있는 몇 개의 포도를 보고 그것들을 먹기를 원한다. 그는 그것들을 잡으려고 계속 시도하지만 실패하고 만다. 결국, 그는 그것들을 보며 입맛을 다실지라도, "내가 장담하는데 그것들은 신맛이 나"라고 말하며 포기하고 떠난다.

25

인지부조화	
생각	프랭클린의 적은 프랭클린을 (A)좋아하지 않았다.
행동	프랭클린의 적은 이전에 프랭클린에게 그의 책을 (B)빌려줬다.

↓

해결: 프랭클린의 적은 그의 사고와 행동 사이의 충돌을 (D)균형잡기 위해 프랭클린에 대해 그가 (C)생각하는 방식을 바꿨다.	
--	--

- 01 despite → (a)though, challenging → challenged, continue → continues  
 02 many people who work in offices far from home rely on an express food delivery service run by dabbawalas  
 03 deliver hot lunch boxes for Mumbai office workers from their homes to their offices  
 04 the delivery man called dabbawala in India and its meaning  
 05 ① → reach[arrive at], ② → pick up, ④ → sending them off  
 06 typical  
 07 eliminating → collecting, attributes → distributes  
 08 (A) picks up (B) loads (C) rides on (D) distributes (E) are returned to  
 09 (T)he (D)elivery (P)rocess (o)f (D)abbawalas  
 10 ② → demand, ④ → suburbs  
 11 be not easy for them to carry their own dabba  
 12 religion  
 13 (a) ride (b) dietary restrictions  
 14 unique  
 15 ① → conduct, ③ → means  
 16 (A) mistaken (B) error-free  
 17 which railway stations it must pass through on its way to a specific office  
 18 (a) code (b) (d)estination  
 19 ㉠ accuracy ㉢ coding system ㉡ codes  
 20 illiterate  
 21 most people cannot imagine an efficient delivery system operating without the benefit of technology  
 22 (1) 단순하다  
 (2) 팀워크에 의존한다  
 (3) 운영비가 저렴하다  
 (4) 100퍼센트에 가까운 고객 만족도를 만들어 낸다  
 23 어떠한 기술의 형태 없이도 오래된 방식 중 일부는 여전히 최고의 방법일 수 있다  
 24 (A) efficiency (B) satisfaction  
 25 distribute

- 01 (1) despite는 전치사로 뒤에 명사나 명사구만 올 수 있으므로 양보의 부사절을 이끌 수 있는 종속접속사 (a)though로 고쳐 써야 한다.  
 (2) 문맥상 많은 전통들이 '도전받고' 있는 중이므로 현재진행형 수동태인 「be being + 과거분사」의 형태가 되도록 과거분사 challenged로 고쳐 써야 한다.  
 (3) 주절의 주어가 the practice로 단수이므로 단수동사 continues로 고쳐 써야 한다.
- 02 주어 many people 뒤에 주어를 수식하는 관계대명사절 who work in offices far from home이 오고, 그 뒤에 문장의 동사 rely on이 이어지며, 전치사 on의 목적어 an express food delivery service를 run by dabbawalas라는 과거분사가 수식한다. 주어가 many people이므로 관계대명사절의 동사와 문장의 동사 모두 복수형으로 써야 함에 유의한다.
- 03 다바왈라는 뭄바이의 사무실 근로자들에게 집에서 사무실까지 따뜻한 점심 도시락을 가져다주는 배달원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다바왈라들은 뭄바이에서 무엇을 하나요?  
 → 그들은 뭄바이 사무실의 근로자들의 집에서 그들의 사무실까지 그들을 위한 따뜻한 점심 도시락을 배달합니다.
- 04 인도에서는 많은 사무실 근로자들이 다바왈라가 운영하는 음식 고속 배달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소개하며 다바왈라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는 글이다.

인도에서 다바왈라라고 불리는 배달원과 그것의 의미

- 05 ① reach는 타동사로 뒤에 전치사가 필요 없으므로 reach로 고쳐 쓰거나 자동사인 arrive at으로 고쳐 써야 한다.
- ② 사역동사 have는 목적격보어로 동사원형 또는 과거분사를 사용하는데, 문맥상 목적어와 목적격보어의 관계가 능동이므로 동사원형인 pick up으로 고쳐 써야 한다.
- ④ send off는 이어동사로 대명사 목적어는 항상 동사와 부사 사이에 써야 하므로 sending them off로 고쳐 써야 한다.
- ③ 문맥상 도시락들이 그들에게 할당되는 것이므로 the dabbas를 수식하는 과거분사 assigned의 쓰임은 적절하다.
- ⑤ 동사 자리가 아니며 문맥상 같은 절차를 따르는 것이라는 능동의 의미이므로 분사구문에 쓰인 현재분사 following의 쓰임은 적절하다.
- 06 typical(전형적인): 어떤 사람 또는 어떤 것의 일반적인 자질이나 특징을 보여주는
- 07 (1) 자신에게 할당된 모든 도시락을 모으고 나서 다바왈라는 그것들을 가까운 기차역으로 가져간다는 내용이므로 eliminating(제거하는 것)을 collecting(모으는 것) 정도로 바꿔 쓰는 것이 적절하다.
- (2) 기차역에서 도시락을 수령한 후 다바왈라가 자전거를 타고 그 도시락을 배달한다는 내용이므로 attributes(탓으로 돌리다)를 distributes(분배하다) 정도로 바꿔 쓰는 것이 적절하다.
- 08 1. 첫 번째 다바왈라는 할당받은 이웃들로부터 집에서 만든 점심 도시락을 (A)수거한다(가져온다).
2. 두 번째 다바왈라는 모든 점심 도시락들을 알맞은 기차에 (B)싣는다.
3. 세 번째 다바왈라는 점심 도시락을 가지고 할당된 기차에 (C)탑승한다.
4. 네 번째 다바왈라는 각 고객에게 점심 도시락을 (D)배분한다.
5. 빈 점심 도시락들은 역순으로 원래 집으로 (E)돌려보내진다.
- 09 도시락이 모아져서 기차로 이동된 후 배달되고 그 이후 빈 도시락이 다시 수거되어 되돌려지는 과정에 대해 설명하는 글이므로 글의 제목으로는 '다바왈라의 배달 과정'이 적절하다.
- 10 ② 도시락 배달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한 사업가가 점심 배달 서비스를 시작했다는 내용이므로 supply(공급)를 demand(수요)로 바꿔 쓰는 것이 적절하다.
- ④ 중산층 사무실 근로자들은 뭍바이의 외곽 지역에 살기 때문에 아침 일찍 출근해야 한다는 내용이므로 centers(중심지)를 suburbs(외곽 지역) 정도로 바꿔 쓰는 것이 적절하다.
- 11 문맥상 빈칸에는 도시락을 가지고 가는 것이 어렵다는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자연스러우며, 앞에 조동사가 있으므로 동사원형인 be로 시작하고, 문장의 주어인 It이 가주어이므로 뒤에 진주어인 to carry their own dabba가 이어지며, to부정사 앞에 의미상의 주어인 for them을 쓰는 것이 적절하다.
- 12 힌두교, 이슬람교, 자이나교의 교리에 따라 식단 제한이 있다는 내용이므로, 빈칸에는 'religion(종교)'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13 많은 뭍바이 근로자들은 그들의 사무실로 출근하기 위해 아침 일찍 붐비는 기차에 (a)타야 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적용되는 (b)식단 제한이 그들이 외식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다바왈라 서비스에 의존한다.
- 14 unique(독특한): 어떤 것을 그것이 쉽게 인식될 수 있고 같은 유형의 다른 것들과 다르게 만드는 특별한 자질이나 특징을 가진
- 15 ① 문맥상 약 5천 명의 다바왈라들이 약 40만 건의 거래를 수행한다는 내용이므로 능동태 동사형이 되도록 conduct로 고쳐 써야 한다.
- ③ 주격 관계대명사 which의 선행사가 their 99.99 percent accuracy rate이므로 단수동사 means로 고쳐 써야 한다.
- ② 문맥상 부정의 의미를 갖는 단어가 필요하며 뒤에 오는 any를 수식할 수 있는 부사여야 하므로 부정부사 hardly의 쓰임은 적절하다.
- ④ 문장의 동사가 is이므로 동사 자리가 아니며 뒤에 목적어 that절이 있으므로 능동형 표현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분사구문으로 쓰인 현재분사 considering의 쓰임은 적절하다.
- ⑤ '칠해져 있는'이라는 의미로 앞에 나온 a code를 수식하고 있으므로 수동 의미의 과거분사 painted의 쓰임은 적절하다.

- 16 (A) 문맥상 늦거나 잘못된 배달의 사례가 거의 보고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되어야 하므로 빈칸에는 mistake의 과거분사 mistaken(잘못된)이 적절하다.
- (B) 다바왈라의 좌우명이 '실수는 공포'이며, 99.99%의 배달 정확성을 자랑스러워한다는 내용이므로 빈칸에는 error-free(무결점의)가 적절하다.
- 17 간접의문문 구조이므로 「의문사 + 주어 + 동사」의 어순으로 써야 하며, 의문형용사 which가 railway stations를 수식하므로 의문사 자리에 which railway stations를 쓰고, 그 다음에 주어 it과 동사 must pass through가 순서대로 이어진다. '소유격이 ~로 가는 도중에'는 「on + 소유격 + way to ~」로 표현한다.
- 18 다바왈라의 독특한 코드와 그것들이 의미하는 바를 설명하고 있다.
- 무엇이 다바왈라 서비스가 결점이 없는 시스템이 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가? → 그것은 다바왈라의 독특한 (a)부호 때문이다: 각각의 도시락에, 다른 색들, 숫자들, 그리고 기호들이 칠해져 있다. 그것들은 각각의 도시락의 출발지점, 경로, 그리고 최종 (b)목적지를 나타낸다.
- 19 도시락을 배달하는 데 있어 높은 @정확성의 비결은 ⑥부호화 체계에 있는데, 이 시스템에서 ②부호들은 각각의 도시락을 배달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를 담기 위해 사용된다.
- 20 illiterate(문맹의): 읽고 쓸 수 없는
- 21 빈칸 뒤의 문장에 however가 있으므로 빈칸에는 뒤 문장의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이 들어가야 하며 빈칸 뒤 문장의 내용이 다바왈라가 어떤 형태의 기술 없이도 예전 방식들 중 몇몇이 여전히 최고의 방식일 수 있음을 증명했다는 것이므로, 빈칸에는 이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인 기술 사용의 이점이 없는 효율적인 배달 시스템을 상상할 수 없다는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자연스럽다.
-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술의 혜택 없이 효율적인 배달 시스템이 운영되는 것을 상상할 수 없다
- 22 It is simple, relies on teamwork, has a low operating cost, and delivers almost 100 percent customer satisfaction.에 다바왈라 조직의 특징들이 제시되어 있다.
- 23 with no form of technology, some of the old ways may still be the best ways에 다바왈라가 증명한 것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다.
- 24 다바왈라의 특징이 시스템의 효율성과 고객 만족이라는 내용으로 빈칸 모두 명사가 들어가야 하므로 (A)에는 지문에 나온 형용사 efficient를 명사형인 efficiency로 바꿔 써야 한다.
- 전 세계의 대기업들은 뭍바이의 다바왈라 시스템으로부터 시스템의 (A)효율성과 고객 (B)만족에 대해 배워야만 한다.
- 25 distribute(분배하다): 무언가를 나누어 주다

Lesson 05 **적중 모의고사**

p.150~158

01 ⑤	02 ③	03 ⑤	04 ④	05 deserve	06 ⑤
07 ⑤	08 I think Noah just feels left out.	09 ③	10 ③		
11 ②	12 ⑤				
13 it's important not to be stressed out if you really want to control					
14 You should wear what makes you feel comfortable.					
15 (1) (Being) Having dinner					
(2) (Having been) Made in Italy					
(3) Not having heard the weather report					
16 ⑤	17 ④	18 what → which	19 ⑤	20 ④	
21 ③	22 ②	23 ①			
24 leave you wondering what you should do					
25 (1) commonly thinks → is commonly thought (2) ask → asking					
26 ③	27 ②	28 ①			
29 Feeling anxious and unhappy, he had to find a way to resolve his feelings.					
30 The chances are they will change.					

- 01 representative(대표(자)): 다른 누군가를 위해 발언하고, 투표하고, 또는 결정을 내리도록 선택받은 사람
- ① 진행자 ② 경쟁자; 상대방 ③ 지지자 ④ 심리학자

- 02 '예산(안); 예산을 세우다'는 budget으로 표현한다.  
 • 내 남편과 나는 가게 예산에 동등하게 기여한다.  
 • Dixon 씨는 당신이 고정될 월 지급을 통해 비용 예산을 세우도록 도울 겁니다.  
 ① 칭찬; 칭찬하다 ② 속도; 평가하다 ③ 충돌; 충돌하다 ④ 상; 지급하다
- 03 ⑤ work out은 '~을 해결하다'는 의미이다.  
 ① Joy는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맞서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다.  
 ② 그들은 Glen을 대신할 사람을 찾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  
 ③ 아마 투표를 다시 세야 할 거야.  
 ④ 밀가루를 다 썼기 때문에 Victoria는 케이크를 구울 수 없었다.  
 ⑤ 우리 직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면 우리는 자문 위원을 고용해야 할 거예요.
- 04 '스트레스를 받다'는 get stressed out으로 표현한다.  
 연구자들은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이 업무 스트레스를 잘 관리한 사람보다 심장 관련 질병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세 배라는 것을 알아냈다.
- 05 '~할 만하다'는 deserve로 표현한다.
- 06 동사 see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간접의문문이므로 「의문사 + 주어 + 동사」의 어순이 되도록 ⑤ does he think를 he thinks로 고쳐 써야 한다.
- 07 남자가 Will에게 우울해 보인다고 무슨 일이 있는지 묻자 (C) Will이 친구 Noah와 문제가 있다고 답하고 (B) 무슨 문제인지 묻는 말에 (A) Noah가 자기를 피하고 문자에 답장도 하지 않는다고 말하자 (D) 그가 왜 그렇게 행동한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흐름이 자연스럽다.
- 08 '나는 ~라고 생각해'는 「I think (that) + 주어 + 동사」로 표현하고, '소외감을 느끼다'는 left out으로 표현한다.
- 09 문맥상 '오해는 말끔히 없애는 게 중요하다'는 의미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③은 '오해를 없애는 건 필요하지 않다'는 뜻이므로 빈칸에 적절하지 않다.
- 10 Julie에게 친구가 많은 이유를 말하고 있으므로 그녀는 고맙다는 표현을 정말 잘 한다는 흐름이 되도록 ㉠ appraisal(평가)을 appreciation(감사) 정도로 바꿔 쓰는 것이 적절하다.
- 11 주어진 문장은 '내 생각에는 Julie가 남의 말을 잘 들어줘서 그런 것 같아.'라는 의미로 Julie는 항상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다는 여학생의 말에 남학생이 주어진 문장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 후 Julie는 친구들이 문제가 있을 때 그들의 말을 들어주기 위해 항상 시간을 낸다고 이어 말하는 흐름이 자연스러우므로 주어진 문장은 ㉡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12 스트레스는 문제를 악화시키기 때문에 마음을 편하게 갖기 위해 노력해 보라고 말하는 흐름이 자연스러우므로 ⑤ better를 worse 정도로 바꿔 쓰는 것이 적절하다.
- 13 '~(가)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it's important (+ for 목적격) + not + to 부정사」로 표현한다.
- 14 '~해야 한다'는 「Should + 동사원형」으로 표현하고, 동사 wear의 목적어로 '~하는 것'이라는 의미의 관계대명사 what을 이용한다.
- 15 (1) 부사절의 접속사와 주어를 생각한 후 부사절의 시제가 주절의 시제와 같으므로 부사절의 동사를 현재분사로 바꿔 쓴다. 이때 분사구문이 「being + 현재분사」로 시작하므로 being은 생략할 수 있다.  
 저녁을 먹고 있을 때 나는 Michael에게 걸려 온 전화를 받았다.  
 (2) 부사절의 접속사와 주어를 생각한 후 부사절의 시제가 주절의 시제보다 앞서므로 부사절의 동사를 「having + 과거분사」로 바꿔 쓴다. 이때 분사구문이 「having been + 과거분사」로 시작하므로 having been은 생략할 수 있다.  
 이탈리아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플루트는 아주 비싸다.  
 (3) 부사절의 접속사와 주어를 생각한 후 부사절의 시제가 주절의 시제보다 앞서므로 부사절의 동사를 「having + 과거분사」로 바꿔 쓰고, 분사구문의 부정은 분사 앞에 not을 써서 표현한다.  
 기상 예보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폭설에 대비하지 못했다.
- 16 ⑤는 앞에 선행사(important tools)가 있고, 뒤에 주어에 없는 불완전한 절이 이어지므로 주격 관계대명사 which 또는 that이 들어가야 하고, ①②③④는 앞에 선행사가 없으므로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what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① 네가 그것이 의미하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지 보자.  
 ② 이것들은 우리가 해야 하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이다.

- ③ 우리는 인생에서 중요하거나 사소한 것을 결정한다.  
 ④ 겉모습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에 관한 작은 부분일 뿐이다.  
 ⑤ 포플러 나무는 환경을 깨끗하게 만드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 17 접속사 없이 두 문장이 연결된 분사구문이며, 문맥상 부사구의 시제가 주절의 시제보다 앞서고 부사구의 주어(The last bus)가 행위의 주체이므로 빈칸에는 「having + 과거분사」의 형태가 되도록 ④ having gone이 적절하다.  
 마지막 버스가 떠나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택시를 타야 했다.
- 18 what 앞에 선행사(앞 문장 전체)가 있고 뒤에는 주어에 없는 불완전한 절이 이어지므로 what을 주격 관계대명사 which로 고쳐 써야 한다.  
 Grace는 영어 말하기 대회에서 1등을 했고, 그것은 그녀의 엄마를 행복하게 했다.
- 19 ⑤ 부사구의 생략된 주어(they)가 행위의 대상이므로 Inviting을 과거분사인 Invited로 고쳐 써야 한다.  
 ① 공원 근처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곳에 한 번도 가 본 적이 없다.  
 ② 교통 체증 때문에 지체되어서 그녀는 늦게 도착했다.  
 ③ 공항에 도착하고 나서 나는 지갑을 잃어버렸다는 걸 알게 되었다.  
 ④ 프랑스어를 몰랐기 때문에 Jessie는 파리에서 의사소통하는 게 힘들다고 생각했다.  
 ⑤ William 왕자에 의해 직접 파티에 초대받아서 그들은 감히 거절할 수가 없었다.
- 20 과거의 특정 시점(연구원을 평가했음)을 기준으로 그 이전의 일(연구원의 개인적인 부탁을 들어줌)은 과거완료로 표현해야 하므로 ㉠ have done을 had done으로 고쳐 써야 한다.
- 21 (A) 학생들에게 무례하게 대함으로써 그들이 그 연구원을 싫어하게 만들었다는 흐름이 자연스러우므로 dislike(싫어하다)가 적절하다. (like: 좋아하다)  
 (B) 자금이 바닥날 위기에 처했다는 흐름이 자연스러우므로 '~을 다 써버리다'는 의미의 run out of가 되도록 running이 적절하다. (stay out of: ~을 피하다)  
 (C) 그룹 1 사람들은 그 연구원의 개인적인 부탁을 들어줬다는 흐름이 자연스러우므로 favor(요청)이 적절하다. (matter: 문제)
- 22 80명의 학생들을 모아서 세 그룹으로 나눈 후 진행할 실험을 설명하는 내용의 글이므로 ② '게다가 그들은 그가 약속한 돈을 주겠다고 각서를 쓸 것을 요청했다.'는 문장은 글의 흐름과 관계가 없다.
- 23 빈칸 뒤에 그 사람은 함께 일하는 데 어려움을 겪거나 항상 언쟁했던 사람이었을 수 있다는 내용이 이어지므로 빈칸에는 ① '당신이 잘 어울려 지내지 못했던'이 적절하다.  
 ② 당신이 항상 주변에 있는 것을 좋아했던  
 ③ 어려운 도전을 시도하는 걸 좋아하는  
 ④ 당신이 대화하고, 웃고, 비밀을 털어놓을 수 있는  
 ⑤ 항상 자기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는
- 24 '~가 ...한 상태에 있게 하다'는 「leave + 목적어 + 목적격보어(형용사[현재분사])」로 표현하고, 7단어로 써야 하므로 '무엇을 해야 할지'는 what you should do로 표현한다.
- 25 (1) 주어(that 이하)가 행위의 대상으로 '~로 흔히 생각되다'는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commonly thinks를 수동태인 is commonly thought로 고쳐 써야 한다.  
 (2) if 부사절 뒤에 이어지는 주절에 주어 없으므로 ask를 주어 역할을 하도록 동명사인 asking으로 고쳐 써야 한다.
- 26 자동사 remain은 수동태로 쓸 수 없으므로 were remained를 remained로 고쳐 써야 한다.
- 27 프랭클린이 자신의 경쟁자에게 책을 빌려 달라는 작은 요청을 하여 그 경쟁자가 자신에게 친절을 베풀 기회를 제공했고, 그 이후 그들은 친구가 되었다는 내용의 글이므로 빈칸에는 ② '작은 부탁을 그의 경쟁자에게 함으로써'가 적절하다.  
 ① 그의 경쟁자의 부탁을 들어줌으로써  
 ③ 그의 경쟁자에게 다른 기회를 달라고 간청함으로써  
 ④ 그의 경쟁자에게 그가 원하는 것을 제공함으로써  
 ⑤ 그 당의 지도자 경선에서 진 것에 대해 그의 경쟁자를 탓함으로써

- 28 관계대명사 that은 전치사 뒤에 쓸 수 없고, 뒤에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절이 이어지므로 ① for that을 목적격 관계대명사인 for whom으로 고쳐 써야 한다.
- 29 부사절의 접속사와 주어를 생략한 후 부사절의 시제가 주절의 시제와 같으므로 부사절의 동사 felt를 현재분사인 Feeling으로 바꿔 쓴다.
- 30 will 뒤에 앞 문장에 나온 동사 change가 반복되어 생략되었다.

**Lesson 06 적중 모의고사**

p.159~167

01 ①	02 ②	03 got stuck	04 ⑤	05 ④
06 ③	07 ⑤	08 ②	09 ①	
10 I stayed one night in the desert.	11 interested		12 ④	
13 ⑤				
14 It was careless of Arthur to make the same mistake.			15 ⑤	
16 ④				
17 The family had lived in San Francisco for 10 years when Kate left for college.				
18 thoughtful of the boy		19 ④		
20 are today being challenged as a result of		21 ②	22 ②	
23 ②	24 procedure	25 ④	26 ②	27 ⑤
28 ⑤				
29 ㉠ Each dabba carries a code, painted with different colors, numbers, and symbols.				
㉡ The dabbawalas are proud of their 99.99 percent accuracy rate, which means just one mistake in every six million deliveries.				
30 ⑤				

- 01 ① strife(갈등, 다툼): 사람들이나 단체 사이에 발생하는 싸움이나 의견 충돌  
 ② 짐; 부담 ③ 과정, 절차 ④ 정확(도) ⑤ 거래, 매매
- 02 ‘(문제나 상황을) 경시하다’는 play down으로 표현하고, ‘~을 강조[중시]하다’는 play up으로 표현한다.  
 • 의사는 내 병의 심각성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나는 속지 않았다.  
 • 그 회사는 자사 제품의 좋은 품질을 강조했다.  
 ① 할당했다 ③ 수여했다 ④ 도움이 되었다 ⑤ 분배했다
- 03 ‘갈하다, 움푹달랴 못 하다’는 get stuck으로 표현한다.
- 04 ⑤ ‘학교를 결석한 학생들은 각 수업에서 놓친 내용을 보충할 것이 요구됩니다.’라는 내용이 적절하므로 present(참석한)를 absent(결석한) 정도로 바꿔 쓰는 것이 적절하다.  
 ① 그녀의 공연은 훌륭했다.  
 ② 그녀가 몇 살인지를 고려하면 그녀는 매우 잘하고 있는 겁니다.  
 ③ 아침 이 시간에는 교통량이 거의 없다.  
 ④ 세종대왕에 의해 한글이 창제되기 전에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문맹이었다.
- 05 ‘반대로’는 in reverse로 표현한다.  
 시스템을 종료하려면 그 절차를 반대로 반복하세요.  
 ① 갈등, 다툼 ② 요인 ③ 교외 ⑤ 약점
- 06 차가 막혀서 약속 시간에 늦을 것 같아도 교통 체증 해결사 서비스가 있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흐름이 자연스러우므로 ③ you have to worry를 you don't have to worry로 바꿔 쓰는 것이 적절하다.
- 07 고객의 차는 안전하게 집에 도착해 있을 것이라고 했으므로 ⑥는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 08 남학생의 질문에 여학생이 ‘3주 동안’이라며 기간으로 대답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남학생은 여학생에게 그곳에 얼마나 오래 머물렀는지 묻는 흐름이 자연스러우므로 ⑥ 방법을 묻는 의문사인 How를 기간이나 길이를 묻는 의문사인 How long으로 바꿔 쓰는 것이 적절하다.
- 09 ‘~하는 것을 기대하다’는 「look forward to + (동)명사」로 쓰므로 ① to visit를 to visiting으로 고쳐 써야 한다.

- 10 I did that.은 ‘내가 했거든.’이라는 의미로 앞 문장에서 언급한 사막에서 하룻밤 머무는 것을 의미한다.
- 11 무엇을 하는 것에 흥미가 있는지 생각하고, 하는 일에 흥미가 있다면 행복할 거라는 흐름이 자연스러우므로 ‘~에 흥미가 있다’는 의미의 be interested in이 되도록 빈칸에는 interested가 적절하다.
- 12 직업이 요구하는 기술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으므로 ④는 강연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 13 ⑤ 주어(The country's top military secret)가 행위의 대상이므로 has accidentally exposed를 수동태인 has been accidentally exposed로 고쳐 써야 한다.  
 ① 나는 지난날부터 승마를 하고 있다.  
 ② 진단지들은 오늘 아침에 인쇄되고 있을 겁니다.  
 ③ 그린란드의 썰매 개 개체 수는 급격하게 줄고 있다.  
 ④ 비행기가 현재 기술 팀에 의해 수리되는 중입니다.  
 ⑤ 그 나라의 1급 군사 기밀이 드론에 의해 우연히 노출되었다.
- 14 careless와 같이 사람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가 문장의 보어로 쓰이면 to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of + 목적격」의 형태로 to부정사 앞에 쓴다.
- 15 주절의 목적어인 my room이 주어로 쓰였고, 시제가 과거진행형이므로 빈칸에는 과거진행형 수동태인 「was being + 과거분사 + by 행위자」가 적절하다.
- 16 ④ 의미상의 주어 앞에 일반적인 형용사 easy가 있으므로 of the man을 for the man으로 고쳐 써야 한다.  
 ① 나는 그가 그런 일을 한 게 이기적이라고 생각했다.  
 ② 여성이 임신한 동안에는 술 한 모금도 마시기에 안전하지 않다.  
 ③ 그녀가 액세서리는 최소화하고 의상으로 모든 것을 보여 준 것은 기발했다.  
 ④ 남자는 자기 삶의 일부가 된 그 회사를 놓아 주는 게 쉽지 않았다.  
 ⑤ 과학자들은 그 포유동물이 살아남는 데 필수적인 서식지를 계속 잃을 거라고 생각한다.
- 17 주어(The family)가 행위의 주체이므로 had been lived를 능동태인 had lived로 고쳐 써야 한다.  
 Kate가 대학에 진학했을 때 그 가족은 샌프란시스코에서 10년 동안 살았었다.
- 18 It(가주어)-to부정사(진주어) 구문이며, 사람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 thoughtful이 문장의 보어 자리에 위치하므로 to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of + 목적격」의 형태로 쓴다.  
 병원에 있는 아픈 친구를 문병하다니 그 소년은 사려 깊다.
- 19 ㉠ 주어(The restaurant)가 행위의 대상이며, 과거의 특정 시점(고객이 파스타 요리를 받음)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일어난 일(고객이 알레르기가 있다는 걸 들음)은 과거완료로 표현해야 하므로 과거완료 수동태인 had been told가 적절하다.  
 ㉡ 주어(the customer)가 행위의 대상이며, 과거에 발생한 사실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was given이 적절하다.  
 그 식당은 그 고객이 심각한 땅콩 알레르기가 있다고 들었지만 그 고객은 땅콩과 견과류가 들어간 평범한 방식으로 조리된 파스타 요리를 받았다.
- 20 ‘도전받고’ 있는 것이므로 현재진행형 수동태인 「be being + 과거분사」로 쓰고, ‘~의 결과로’는 as a result of로 표현한다.
- 21 (A)와 ②의 express는 ‘빠른, 신속한’이라는 의미로 쓰였다.  
 ① 내가 얼마나 슬픈지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다.  
 ② 우리는 7호선으로 갈아타고 8시 20분 급행열차를 탔다.  
 ③ Munch의 많은 그림은 깊은 절망감을 표현한다.  
 ④ Gloria는 그 매니저와 대화하겠다는 분명한 목적을 갖고 사무실에 갔다.  
 ⑤ 내가 죽고 나면 네가 내 책들을 대학 도서관에 기증해야 한다는 게 내 분명한 바람이야.
- 22 다바왈라의 배달 시스템이 효율적인 이유 중 하나는 운영비가 낮기 때문이라는 흐름이 자연스러우므로 ② opportunity(기회)를 operating(운영의) 정도로 바꿔 쓰는 것이 적절하다.
- 23 수식 대상(the dabbas)과 수동 관계이므로 ② assigning을 과거분사인 assigned로 고쳐 써야 한다.



- 24 procedure(과정, 절차): 특히 정확하거나 일반적인 방법으로 어떤 것을 하는 방식
- 25 다바왈라 서비스가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설명하는 내용의 글이므로 ㉔ ‘그가 누군가의 아이디어를 훔친 것은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것이었다.’는 문장은 글의 흐름과 관계가 없다.
- 26 주어진 문장은 ‘그들은 아침 일찍 만원 열차를 타고 사무실로 출근해야 한다’는 의미로 다바왈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Mumbai 교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출근을 하려면 아침 일찍 출발해야 해서 도시락을 들고 다니기 힘들다는 흐름이 자연스러우므로 주어진 문장은 ㉔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27 「주격 관계대명사 + be동사」가 생략된 구문이며, 앞에 나온 선행사(their home-cooked meals)와 수동 관계이므로 ㉔ making을 과거분사 made로 고쳐 써야 한다.

- 28 오늘날 대략 5천 명의 다바왈라들이 하루에 40만 건의 거래를 수행한다는 주어진 글 다음에 (C) 심지어 폭우나 정치적 투쟁 동안에도 배달하는데 놀랍게도 잘못 배달된 사례는 거의 없다는 내용이 이어지고 (B) 다바왈라들은 완벽에 가까운 정확도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A) 그 비결은 부호화 체계에 있다고 이어지는 흐름이 자연스럽다.
- 29 ㉔ 「주격 관계대명사 + be동사」가 생략된 구문이며, 선행사(a code)와 수동 관계이므로 painting을 과거분사 painted로 고쳐 써야 한다.  
㉕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는 that으로 쓸 수 없으므로 that을 which로 고쳐 써야 한다.
- 30 99.99퍼센트의 정확도는 6백만 건의 배달 중 단 1건의 실수가 있다는 걸 의미한다고 했으므로 ㉕는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